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2018-2020 성과자료집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2018-2020 성과자료집**

- 4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소개
- 6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PART 1.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2018년 – 만남을 시작하다

- 16 충북 괴산
- 20 경기 안산
- 24 강원 원주
- 28 전북 전주
- 32 충북 청주

2019년 – 다시, 더 많이 나누다

- 38 경북 고령
- 42 충남 공주
- 46 전남 순천
- 50 충북 옥천
- 54 경남 창원
- 58 충북 충주

2020년 – 멀리서 대화를 이어가다

- 64 경남 고성
- 68 경기 군포
- 72 전남 목포
- 76 경남 밀양

2018~2020년 우수사업 – 연이은 만남, 깊이를 더하다

- 82 강원 영월
- 92 경기 이천
- 102 경기 광명
- 112 충남 서천
- 122 경기 김포
- 126 전남 해남
- 131 우수사업 담당자 인터뷰

PART 2.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 150 진행일정
- 152 사업성과
- 156 담당자 인터뷰

PART 3.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 162 주요 활동 및 성과
- 168 자문위원 인터뷰

부록

- 178 사업 만족도 조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www.kofice.or.kr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국경을 초월한 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기획·지원,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조성,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사례분석 및 연구 등 다양한 문화교류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 허브를 담당하며 전 세계인들과의 교류로 '공감'과 '상생'의 국제문화교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사업 소개

국제문화교류의 주축이 국가와 공공에서 지역과 민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민간 주도 교류사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 이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기관이 주도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완성도 높은 국제문화교류를 이끌기 위해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을 마련하였다. 2018년부터 시행하여 매해 맞춤형 지원·관리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으며, 사업 기획부터 콘텐츠 개발, 홍보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해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협력하여 국제문화교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초 전국 기초지자체 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국제문화교류 사업계획을 공모·선정하여,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사업추진 예산을 지원한다. 차년도 교류사업을 기획 중인 기관에는 사업기획력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제문화교류의 정착을 위해 국제문화교류 자문단의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있다.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내 국제문화교류 단체 및 기관(특별시, 광역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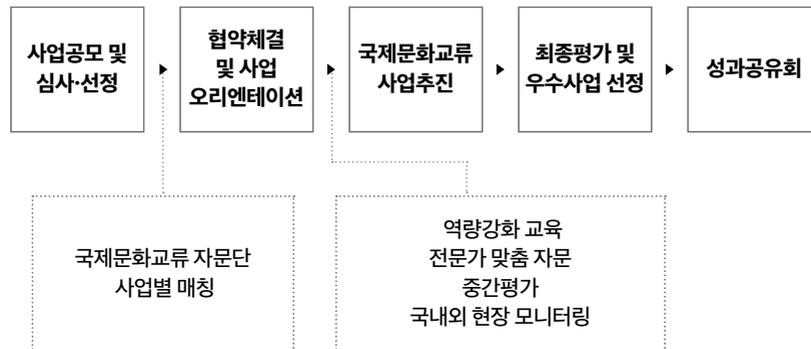
지원내용

사업 예산	국제교류 사업기획 및 추진에 필요한 예산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90% 이내)
전문가 자문	사업 착수-운영-평가 단계별 전문가 매칭 및 자문 제공
역량강화 교육	국제문화교류 사업기획 역량강화 및 프로그램 성과 확대를 위한 상·하반기 교육 진행

사업 참여방법

- 연초(2월~3월)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 지자체와 민간단체·기관이 협력한 사업계획 제출

주요일정



공모내용

1. 당해연도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기초지자체와 지역 민간단체·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콘텐츠의 국제교류 사업 지원

지원대상	전국 기초지자체 내 민간 문화예술 단체·기관
지원규모	총 8개 내외 사업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방비 확보
지원내용	기초지자체·민간단체와 해외 지역 간의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을 위한 사업예산, 전문가 자문, 영상 제작 전문가 파견

구분	세부내용
사업 예산	국제교류 사업기획 및 추진에 필요한 예산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90% 이내)
전문가 자문	사업 착수-운영-평가 단계별 전문가 매칭 및 자문 제공
영상 제작 전문가 파견	국내외 사업현장 파견을 통한 성과 아카이빙 및 홍보영상 제작 지원

2. 차년도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차년도 추진 예정 국제교류 사업의 기획 완성도 제고 및 수행기관 추진역량 강화 지원

지원대상	국제문화교류 사업기획 및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지자체 또는 민간 문화예술 단체·기관
지원규모	총 5개 내외 사업
지원조건	기초지자체와 민간단체·기관 협력의 차년도 추진 예정 사업계획서
지원내용	기초지자체·민간단체와 해외 지역 간의 차년도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 자문

구분	세부내용
역량강화 교육	①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이해 ② 지역 콘텐츠 활용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기획 ③ 사업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전략 ④ 우수사업 사례 및 추진 노하우 공유
전문가 자문	① 사업별 전문가 자문위원 매칭 ② 사업기획안 문제점 보완 및 개선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지역 국제문화교류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단 운영

운영인원	지역, 콘텐츠, 문화예술, 국제교류, 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 10인 내외
주요내용	공모 심사, 중간·최종평가, 사업내용 자문 등

당해연도 추진사업 자문	차년도 기획사업 자문
공모 심사 및 선정	공모 심사 및 선정
교류 프로그램 자문	사업 역량강화 교육
자문사업 중간/최종평가	사업계획안 자문
현장 모니터링	자문사업 중간/최종평가

- 운영절차**
1. 자문위원단 위촉
 -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구성 및 자문위원 위촉
 2. 공모심사 및 선정
 - 지역 국제문화교류 사업계획안 평가 및 기초지자체·사업수행기관 선정
 3. 사업별 자문위원 전담 지정
 - 선정사업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 1~2인 전담 지정
 4. 밀착 자문 및 역량강화 교육
 - 사업 착수-운영-모니터링-평가 단계별 전문가 자문
 - 국제문화교류 사업기획 및 프로그램 성과확대를 위한 교육
 5. 사업 평가
 - 사업 중간·최종평가 및 지역 국제문화교류 우수사업 사례 발굴

PART 1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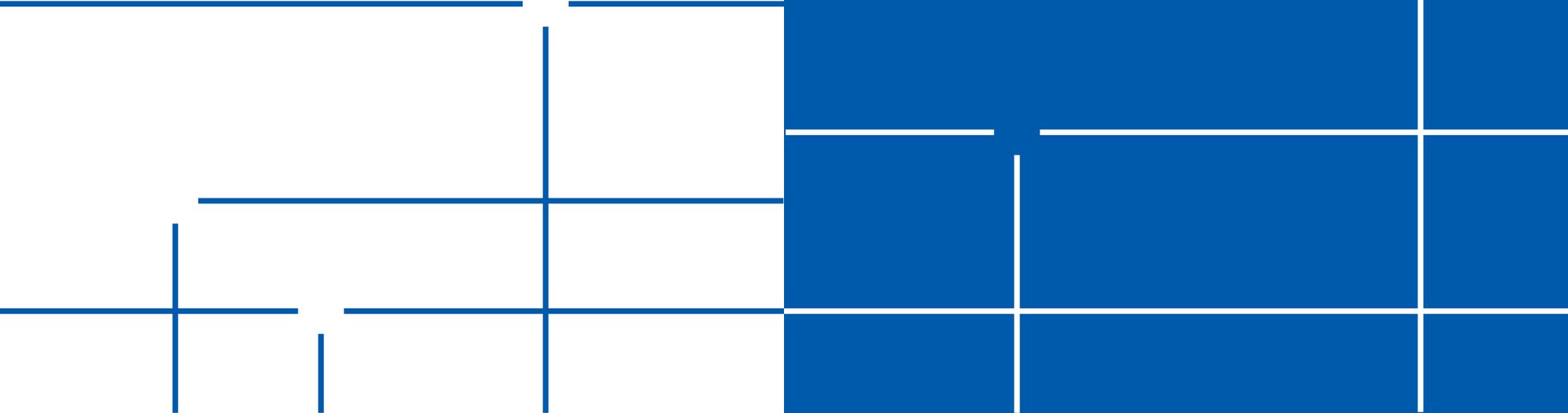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은 2018년부터 기초지자체와 지역 민간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예산과 사업운영·관리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문화교류 수행을 도왔다.

2018년 첫해에 시작된 국내외 지역 간의 만남은 2019년에 다양한 형태와 분야로 확장되었다. 연이은 만남 속에 생겨난 긴밀한 관계를 발판삼아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졌다. 2020년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대면 교류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새로운 방식의 대화를 이어갔다.

지난 3년간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문화 콘텐츠로 성공적인 교류를 수행한 21개 지역의 이야기를 조망해본다.

2018년

만남을 시작하다



한지, 소리를 담고 바람에 날다



분야	전시(한지), 공연(사물놀이), 워크숍(한지, 활자, 종이 제작)
참여 지자체	충북 괴산군
사업수행기관	문화공간 그루
교류지역	프랑스 몽틀리외
주요 교류기관	몽틀리외 책마을협회, 종이인쇄박물관

추진일정

기간	2018년 12월 27일 - 2019년 1월 4일
프로그램	전시(4일), 공연(2회), 워크숍(4회)
진행일정	<p>10월 · 교류 방향성 수립 및 공연·전시 프로그램 1차 점검 · 프랑스 몽틀리외 사전답사 및 프로그램 세부내용 협의, 장소 점검</p> <p>11월 · 프로그램 2차 구성 및 점검</p> <p>12월 · 프로그램 최종점검 및 체크리스트 확인 · 공연 <한지, 소리를 담고 바람에 날다> 12.29. 몽틀리외 장 계노 극장 · 종이제작 시연 등 양국 전문가 워크숍 12.28.~31. 몽틀리외 종이인쇄박물관, 종이방앗간 등 · 한지 및 판화작품 전시 12.28.~31. 장 계노 극장 등 · 파리 세계기속사촌 한국관 개관 기념 비나리 공연 2019.1.2. 파리 세계기속사촌</p>

괴산의 공연단체 '문화공간 그루'가 공연 <한지, 소리를 담고 바람에 날다>를 프랑스 몽틀리외에서 선보였다. 몽틀리외의 장 게노 극장에서 열린 공연은 한지로 만든 무대 장식과 소품을 바탕으로 괴산 자연과 사람들의 모습을 전통 소리, 연주, 춤으로 정겹게 보여주었다. 특히 전통 한지를 만드는 장인들의 모습도 생생하게 그려내 괴산의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한 공연 안에 엮어냈다. 한지장인과 프랑스의 종이장인, 지역 아티스트들이 체험 워크숍을 진행하고 한지로 만든 판화나 소품을 전시하여 주민들에게 값진 체험의 시간을 제공했다. 해외 자매도시가 없는 괴산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문화교류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고유 자산을 통해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한지, 프랑스 종이 제작 시연 워크숍(2018.12.31. 종이방앗간)



문화공간 그루는 2015년부터 괴산을 기반으로 풍물패 활동을 펼쳐온 공연단체로, 버꾸춤, 소고춤, 설장구, 판굿 등을 정기 공연의 형태로 선보이며 괴산의 전문 문화예술단체로 자리 잡았다. 문화공간 그루는 한지체험박물관을 운영하며 전통 한지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충북 괴산의 문화 콘텐츠에 주목하여 새로운 풍물패 공연을 기획했다. 괴산의 서점 '숲속작은책방', 괴산에 터를 둔 기획자, 공예가, 영상 제작자 등 괴산 사람들이 힘을 보태어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교류지역 소개

프랑스의 작은 책마을 몽틀리외는 인구 8백 명 남짓한 프랑스 남부의 농촌 마을이지만, 화가, 조각가, 공예가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공방이 있고 연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만큼 문화적인 활기가 대단한 곳이다. 마을의 변화를 주도한 프랑스의 제본 기술자 미셸 브레방이 1991년 '몽틀리외 책마을협회'를 설립하며 아끼자끼한 문화예술 마을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 괴산과 마찬가지로 전통 방식으로 종이를 생산하는 종이방앗간이 있으며 괴산의 한지체험박물관처럼 종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성과

- 괴산 최초 지자체·민간협력 국제문화교류 추진, 소규모 마을 단위 국제문화교류 사례 발굴
- 양 도시 문화자원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확보, 국제교류 사업기반 구축 및 협업 계기 마련
- 전문가의 워크숍 진행으로 단순 체험이 아닌 현지 예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괴산 문화예술 콘텐츠 체험기회 제공

공연 <한지, 소리를 담고 바람에 날다>: 150여 명 관람

몽틀리외 주최 활자 워크숍: 40여 명 참여 / 한지 체험 워크숍: 총 3회, 60여 명 참여

한지, 프랑스 종이 제작 시연 워크숍: 80여 명 참여

지역 아티스트 한지 워크숍: 예술가 7명 포함 50여 명 참여

후속사업

- 몽틀리외의 종이방앗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문화재 복원 전문가 등 현지 협력기관의 괴산 방문(2019.11.20.) 및 전통 한지 보존·보급 논의
- 2019년 프랑스 몽펠리에 한국문화축제 '코레 디씨(Coree d'ici)' 측 초청으로 축제 참가(2019.11.5.~23.)
- 2020년 코레 디씨 초청(코로나19로 2021년 참가 예정)

단원 길 떠나다



사업개요

분야	전시(미디어), 공연(융복합 무용극)
참여 지자체	경기 안산시
사업수행기관	안산문화재단
교류지역	중국 옌타이
주요 교류기관	옌타이미술관

추진일정

기간	2018년 11월 16일 - 11월 21일
프로그램	전시(6일), 공연(3회)
진행일정	<p>7월 · 교류지역 선정 및 사업 협조 요청 · 교류 내용 및 참여 지역단체 확정</p> <p>8월 · 전시 및 공연 준비</p> <p>9월 · 중국 옌타이 사전답사 및 장소·전시 물품 등 사전점검</p> <p>10월 ·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 배포 · 각종 계약, 작품 운송 등 사업 준비 착수</p> <p>11월 · 전시 <단원 김홍도, 길을 떠나다> 11.16.~21. 옌타이미술관 · 공연 <단원화무도> 11.16.~18. 옌타이미술관</p>

안산문화재단은 단원 김홍도의 작품세계를 기반으로 한 전시 <단원 김홍도, 길을 떠나다>와 공연 <단원화무도>를 중국 엔타이에서 진행하였다. 단원의 그림을 복제한 '행려풍속도병' 영인본과 '평안감사향연도'가 전시되어 단원의 눈으로 바라본 조선 후기의 거리풍경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이남, 차동훈, 조환 등 한국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단원의 작품을 모티프로 만든 미디어아트 작품은 옛 그림과 신구의 조화를 이루었다. 미술전시와 더불어 현대미술과 전통무용, 국악이 결합된 융복합 공연 <단원화무도>도 3회에 걸쳐 열렸다. <단원화무도>는 2016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안산문화재단 상주단체인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와 극단 걸판의 협업으로 비언어적인 몸짓과 볼거리를 동원하여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감을 만들어냈다.

공연 <단원화무도>(2018.11.17. 엔타이미술관)



2018

1991년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단원의 도시'로 명명한 경기 안산에 2006년 설립된 안산문화재단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단원미술관 등을 운영하며 단원 김홍도와 관련된 지역특화 콘텐츠사업을 추진해왔다. 안산문화재단은 안산의 문화 콘텐츠를 국제화하고 단원미술관의 위상을 높이고자 단원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단원의 복원 작품 등을 엔타이에서 전시하고 현대와 전통 예술이 결합된 공연을 펼쳤다.

교류지역 소개

중국 엔타이는 2009년 안산과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자매·우호도시로 교류 중인 도시다. 중국 웨이하이 다음으로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도시이며, 안산과 마찬가지로 공단 도시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 교류의 기반이 일찍부터 조성된 곳이다. 또한 지금까지 안산과 청소년 교류, 기술산업 및 경제교류 등을 진행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안산과의 문화예술교류는 안산문화재단을 통해서 처음 진행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양국의 문화교류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사업성과

- 기존 자매·우호도시를 대상으로 한 기술·경제·산업 분야 위주의 교류에서 문화예술 교류로 분야 확장
- 2007년부터 진행해온 단원 콘텐츠 공연 및 전시의 최초 해외 진출
- 안산 지역과 단원 콘텐츠 간의 연결성 제고를 통한 국제교류 콘텐츠의 지속 개발

전시 <단원 김홍도, 길을 떠나다>: 750여 명 관람

공연 <단원화무도>: 400여 명 관람

후속사업

- 2019년 '안산거리극축제'에 엔타이 전통공연단 초청, 전통무용 공연 진행 (2019.5.4.~5.)

만남을 시작하다

사운드와 영상을 매개로 한 원주-잔지바르 콜라보 프로젝트



분야	워크숍-페스티벌(전통음악, 미디어)
참여 지자체	강원 원주시
사업수행기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교류지역	탄자니아 잔지바르
주요 교류기관	과라라미디어교육센터, 잔지바르 음악기관 DCMA

추진일정

기간	2019년 2월 7일 - 2월 18일
프로그램	공연(1회), 마을 영화제(1회), 워크숍(20회)
진행일정	<p>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내용 선정 및 사업참가자 확정 · 현지 협력기관과 사업 협조사항 논의 <p>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전통음악 교류방향성 수립 · 기존 영화제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현지 맞춤형 매뉴얼 제작 <p>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대상 이슬람 문화권 정보 및 유의사항 전달 · 홍보물 제작, 각종 입차, 장소 점검 등 사업 준비 <p>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지농악-타아랍 음악교류 워크숍 2.9~14. 및 페스티벌 개최 2.15. DCMA · 영상 제작·상영회 준비 워크숍 2.8~14. 및 마을영화제 개최 2.15. 과라라미디어교육센터

원주영상미디어센터가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 현지 미디어센터, 음악팀 등과 협력하여 영상 및 음악 축제를 열었다. 먼저 콰라라미디어교육센터, 잔지바르 최초의 청소년 미디어 클럽인 SMC(Students Media Club)와 함께 '잔지바르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센터의 대표사업 노하우를 적용하여, 상영회를 준비하는 전문 워크숍을 단계별로 진행했다. 원주 지역 설화를 소재로 한 영상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관람문화 형성을 위한 에티켓 영상과 SMC 소개 영상을 공동제작하기도 하였다. 매지농악보존회는 잔지바르 음악기관 DCMA(Dhow Counties Music Academy) 음악가들과 협연 워크숍을 열어 양국 전통음악으로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잔지바르 '스톤타운'에서 한국의 매지농악, 사물놀이, 아리랑과 현지 전통음악 '타아랍(Taarab)'을 접목한 합동공연을 선보이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음악교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라이브 음반도 제작하여 지속가능한 교류 기반을 다졌다.

마을 영화제 워크숍(2019.2.12. 콰라라미디어교육센터)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영화 상영 및 영상 제작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특히 미디어에서 소외된 계층을 돕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찍부터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미디어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2018년 잔지바르와의 교류에서는 2017년부터 원주미디어센터가 운영해온 '원주옥상영화제' 경험을 살려 잔지바르 미디어 페스티벌을 노련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교류지역 소개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는 아랍, 이란, 인도, 영국 등 다양한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도시다. 이 중 인도, 아랍, 아프리카의 음악적 전통이 융합된 전통음악 타아랍이 전승되고 있어 매지농악을 이어온 원주와 접점을 가지고 있다. 잔지바르의 유일한 음악기관인 DCMA는 타아랍뿐만 아니라 재즈, 아프리카 음악 등 다채로운 음악 장르를 연주하고 있다. 또한 잔지바르는 아프리카 지역 중 비교적 일찍 텔레비전이 보급되었고 지역 내 라디오 보급률이 62.4%에 달해 미디어에 친숙한 편이며, 2017년 만들어진 콰라라 미디어교육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과 교육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성과

-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기존 잔지바르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미디어 영상 교육에서 쌍방향 문화교류로 사업 확대 및 교류접점 강화
- 원주 전통음악 콘텐츠 활용, 기존에 한국과의 접점이 많지 않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국제문화교류 기회 마련
- 국내외 매지농악 인지도 제고 및 가치 부각의 기회 마련

음악교류 합동공연: 300여 명 관람

마을 영화제: 현지 학생 300여 명, 교육부 및 현지 관계자 30명 참여

음악교류 워크숍: 음악교류팀 7명, DCMA 단원 6명 참여

르네상스 도시 피렌체에서 피어난 전주마당창극 〈변사또생일잔치〉



분야	공연(마당창극)
참여 지자체	전북 전주시
사업수행기관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
교류지역	이탈리아 피렌체, 만토바, 노비리구레, 로마, 베네치아
주요 교류기관	피렌체 음악예술연구센터, 만토바 텔레이온 합창학교, 노비리구레 시립합창단

추진일정

기간	2018년 11월 30일 - 12월 10일
프로그램	공연(5회)
진행일정	<p>6~8월 · 전주 대표 콘텐츠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 · 교류도시 선정 및 사업 협의</p> <p>9월 · 장비임차, 공연장 점검 등 사업 준비 착수</p> <p>10월 · 노비리구레 사절단 전주 방문 및 사업 협조사항 논의 · 국내외 홍보 착수</p> <p>11월 · 도시별 홍보물 제작</p> <p>12월 · 버스킹 공연 〈한국의 향〉 12.1. 로마산티비첸쵸아나스타시오 성당 · 공연 〈변사또생일잔치〉 12.3. 피렌체 살라바니 홀 · 선상 버스킹 공연 12.4. 베네치아 · 공연 〈변사또생일잔치〉 12.5. 만토바 오디토리엄 몬테르베디 · 공연 〈변사또생일잔치〉 12.7. 노비리구레 자코메티 시립극장</p>

전주의 자매·우호도시 피렌체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5개 도시에서 전주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이 피렌체, 만토바, 노비리구레에서 선보인 공연 <변사또생일잔치>는 <춘향가>와 창작곡, 뮤지컬, 연극, 전통무용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마당창극이다. 한국의 멋과 흥을 담은 공연은 오페라와도 유사점이 많고, 보편적인 사랑의 정서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어 많은 관람객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마당창극 배우들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 침선장 이순옥이 참여한 한복패션쇼가 이어져 한국의 복식과 문화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연단은 마당창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버스킹 공연도 진행했다. 로마의 산티비첸췌·아나스타시오 성당에서는 민요, 살풀이춤, 아쟁연주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향> 공연이 성당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만나면서 이색적인 무대가 연출되었고, 운하 도시 베네치아에서는 선상 판소리 공연을 펼쳐 양국 교류에 다채로움을 더했다.

공연 <변사또생일잔치>(2018.12.7. 노비리구레 자코메티 시립극장)



전주문화재단은 전주의 중요 문화유산인 판소리와 한옥을 중심으로 문화의 일상화를 도모하고 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기관이다. 2012년부터 자체 상설공연단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전통 공간에서 마당창극 공연을 열고 있다. 그 외에도 판소리, 마당놀이 등 전주 문화유산을 활용한 공연을 국내 각지에서 펼치며 전주 전통문화의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중세 유럽의 중심지였으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피렌체는 전주와 2007년부터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전통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전주와 융성한 문화의 흔적이 정성스럽게 보존된 피렌체는 서로 비슷한 여건을 갖춘 예술의 도시다. 매년 피렌체 한국영화제를 개최하고, 세계 음악인이 참여하는 피렌체 세계음악예술축제에서 양국 문화교류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한국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사업성과

- 전주 고유 공연예술 마당창극의 해외 공연화를 통해 최초로 이탈리아 진출
- 피렌체 세계음악예술축제, 노비리구레 음식축제 등 오랜 역사를 가진 축제와 연계함으로써 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
- 해외공연 경험이 없는 지역 아티스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 다양한 무대 경험 및 역량강화

공연 <변사또생일잔치>: 3개 도시 총 1,800여 명 관람

공연 <한국의 향>: 2개 도시 총 1,000여 명 관람

〈선비의 식탁〉 국제교류전



2018

사업개요

분야	전시·워크숍(식문화, 공예)
참여 지자체	충북 청주시
사업수행기관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교류지역	호주 시드니
주요 교류기관	호주디자인센터, 응용미술 및 과학박물관, 주시드니한국문화원

추진일정

기간	2019년 2월 8일 - 4월 19일
프로그램	전시(70일), 워크숍(31회)
진행일정	<p>10월 · 현지 협력기관과 협약 체결 및 일정 확정</p> <p>11월 · 전시 및 워크숍 콘텐츠 세부내용 확정 · 참여 작가 및 전문가 확정</p> <p>12월 · 사업 참가자 전체 중간총회 개최 · 사업 자문 반영, 연계 프로그램 추가</p> <p>1월 · 현지 홍보 진행 및 전시 도록 제작 · 전시 개막식 참여자 초청 및 워크숍 참가자 사전 모집 · 사업 외부평가자 섭외 · 각종 계약, 장비 임차, 장소 조성 등 사업 준비 착수</p> <p>2월 · 전시 〈선비의 식탁-청주의 맛과 멋 이야기〉 2.8.~4.19. 주시드니한국문화원 · 공예, 도자, 식문화 워크숍 2.9.~2.12. 호주디자인센터 등 · 사업평가 진행 및 발전방안 도출 ·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기관 미팅</p>

만남을 시작하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예 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가 호주 시드니에서 국제교류전 <선비의 식탁-청주의 맛과 멋 이야기>를 개최했다. 100여 년 전 청주 지역의 기록유산인 『반찬등속』을 바탕으로 기획된 전시로, 조선 말기 청주의 양반집 음식문화가 담긴 조리서 『반찬등속』을 통해 한국의 선비문화와 식문화를 조망하고 이와 함께 발전해온 공예의 예술성을 선보였다. 또한 청주 함양박씨 집안에서 400년간 이어온 충청북도무형문화재 신선주를 소개하고, 소반, 유기, 옹기, 도자와 같은 식문화와 관련된 전통·현대 공예작품들을 전시하였다. 전시와 더불어 공예, 식문화, 도자에 대한 워크숍이 시드니 체스우드도서관, 주시드니한국문화원, 호주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공예 워크숍에서는 지역 공예작가들과 함께 각종 공예를 체험하고 이들의 제작 시연을 관람할 수 있었고, 『반찬등속』을 재현한 상차림과 신선주를 체험해볼 수 있는 식문화 워크숍도 열렸다. 도자 워크숍에서는 전통·현대·옹기 분야의 작품 전시로 호주 도예가들과 교류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현지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식문화와 공예를 자연스럽게 엮어 지역상품 개발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공예 워크숍 (2019.2.11. 주시드니한국문화원)



2018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도자, 목칠, 섬유, 금속 등 공예 전 분야를 총망라하여 국내외 공예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청주공예비엔날레의 기획과 운영을 맡고 있다. 과거 양반문화에서 이어진 문화적 유산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공예디자인 산업 등을 축제로 접목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왔다. 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총괄팀과 더불어 도자, 금속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기획위원회, 시민위원회, 국제자문관 등을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호주 시드니는 한국과 호주가 50년이 넘는 수교를 이어오는 동안 양국 문화교류의 다리 역할을 해왔다. 2011년 한국-호주 수교 50주년을 맞아 설립된 주시드니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와 연계한 전시, 영화제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외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을 갖추고 있어 문화생활의 중심지로도 알려져 있다. 호주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는 '시드니 공예주간'이 매년 열릴 정도로 공예에 대한 관심이 큰 곳이기도 하다.

사업성과

- 청주 기록유산 『반찬등속』을 활용한 전시 신규 기획 및 지역문화 브랜드화 가능성 타진
- 호주공예협회 등 호주 내 8개 문화예술기관 네트워크 확보로 국제교류 기반 마련
- 청주 식문화 전문가 및 공예 예술가 국제교류 활동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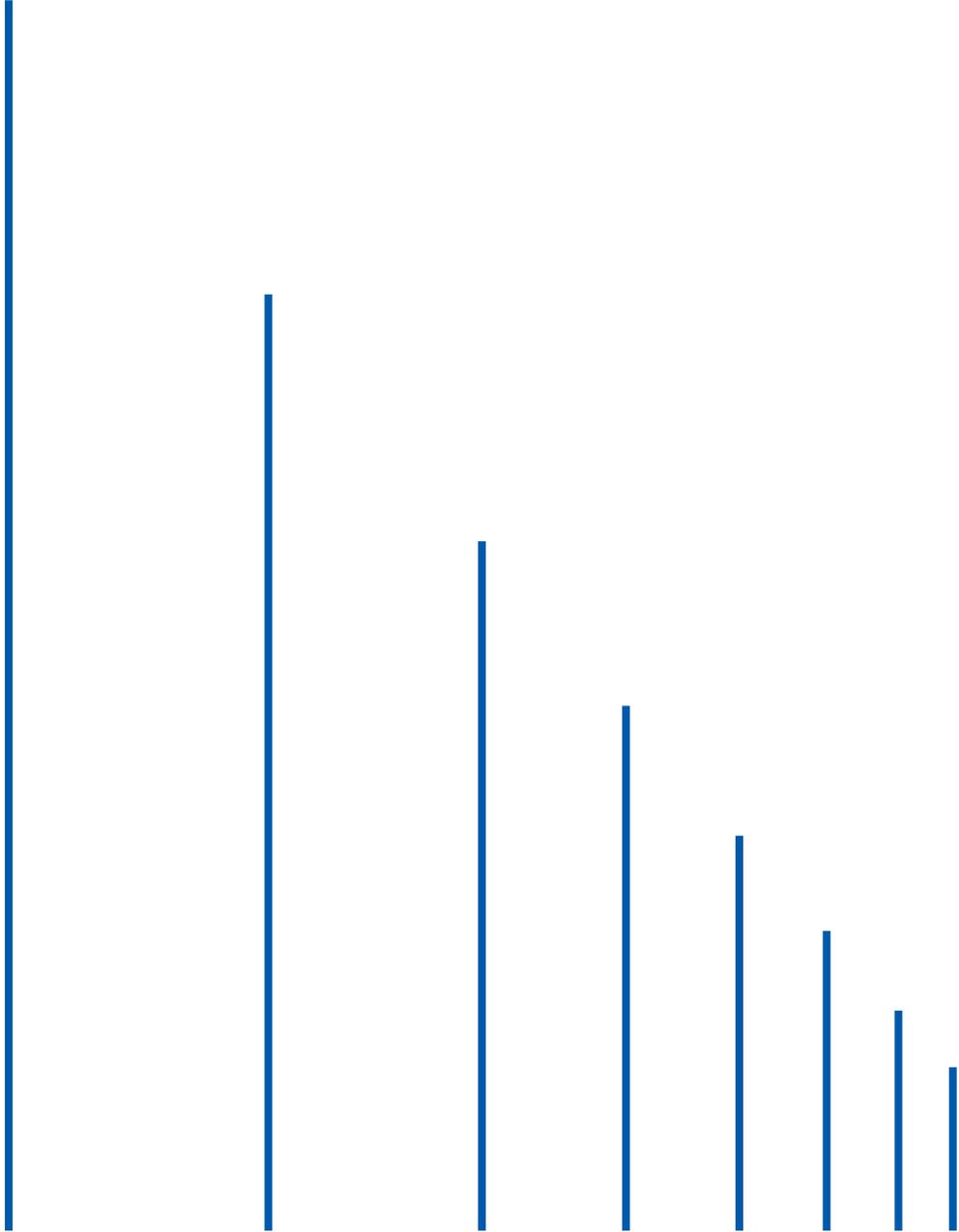
전시 <선비의 식탁-청주의 맛과 멋 이야기>: 4,000여 명 관람
공예, 식문화, 도자 워크숍: 300여 명 참여

후속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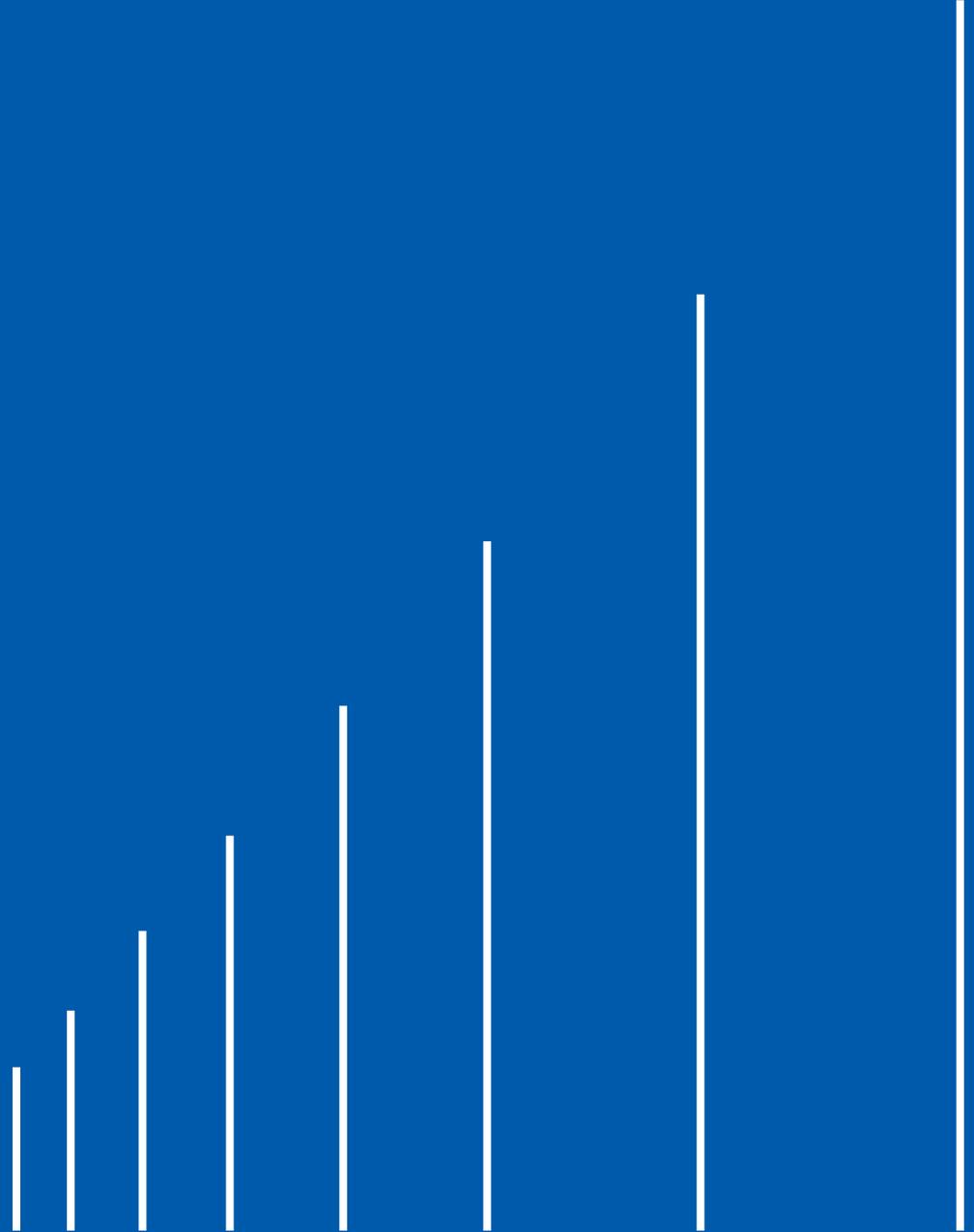
-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 초대국가관에 호주 초청 확정

만남을 시작하다

2019년



다시, 더 많이 나누다



대가야의 소리 ‘가야금, 마당놀이 풍동전’ 해외공연



분야	공연(마당놀이), 전시·세미나(가야금)
참여 지자체	경북 고령군
사업수행기관	고령문화원
교류지역	이탈리아 크레모나, 크레마
주요 교류기관	크레모나 바이올린박물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제작학교, 몬테베르디 음악학교

추진일정

기간	2019년 10월 30일 - 11월 7일
프로그램	공연(7회), 가야금 제작 설명회 및 전시(4회)
진행일정	<p>3월 · 고령군-고령문화원 사업기획 사전논의 및 역할분담</p> <p>4~5월 · 현지와 사업 세부내용 및 일정협의</p> <p>6~7월 · (1차 사전답사)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협의</p> <p>8월 · 홍보물 제작 및 홍보계획 수립</p> <p>9~10월 · (2차 사전답사) 현지 모객 방안 및 방송사 인터뷰 일정 협의, 행사장 점검 · 각종 계약 및 임차 등 사업 착수</p> <p>11월 · <풍동전> 및 고령군립가야금단 공연 10.31.~11.5. 크레모나 바이올린박물관, 필로극장 등 · 가야금 제작 설명회 및 전시 10.31.~11.5. 크레모나 바이올린제작학교 등 · 길놀이 및 버스킹 공연 10.31.~11.5. 크레모나 시민광장, 마크로니 광장 등</p>

다시, 더 많이 나누다

고령이 이탈리아 크레모나와 크레마에서 '대가야의 소리'를 주제로 마당놀이 <풍동전>, 가야금 설명회 및 전시, 시내 버스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탈리아 곳곳에서 볼거리를 제공했다. 고령의 장승설화를 소재로 한 마당놀이 <풍동전>과 고령군립가야금단의 가야금 연주는 크레마 산도메니코 극장, 크레모나 바이올린 박물관 콘서트홀, 크레모나 필로 극장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전통상인 보부상 재현, 장승의 의인화, 전통 가무 및 혼례 등으로 구성된 <풍동전>은 처음 접하는 한국의 전통관습과 리듬, 그리고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마당극 형식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고령군립가야금단과 몬테베르디 음악학교 현악연주단은 이탈리아 민요인 산타루치아에 아리랑을 더해 편곡한 '산타루치아 환상곡(Fantasy of Santa Lucia)'으로 무대의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한편, 현악기라는 양 도시 공통점을 토대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제작학교에서 가야금 제작 설명회를 열어 가야금 명인이 악기의 원재료와 제작 방식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가야금 연주 체험, 바이올린과의 비교설명 등을 통해 양국 악기를 이해하고 가야금의 우수성도 유럽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가야금 제작 설명회 및 전시(2019.11.4. 크레모나 바이올린제작학교)



고령문화원은 가야금의 고장으로 알려진 고령에 1974년 설립된 이래로, 고령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륵과 가야금의 고장이라는 역사성에 바탕을 둔 고령군립가야금단을 운영하며 다양한 해외공연을 통해 동·서양 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해왔다. 고령군립가야금단과 극단 '고령토'의 공연은 악기의 도시로 유명한 크레모나와 가야금의 고장 고령을 음악으로 이어주었다.

교류지역 소개

경북 고령의 자매도시 이탈리아 크레모나는 바이올린을 비롯한 전통 현악기 제작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곳이다. 음악과 악기라는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여 고령과 2014년 동·서양 문화·경제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 2015년 크레모나 오케스트라의 방한 공연, 2016년 고령군립가야금단의 크레모나 세계악기박람회 특별공연, 2019년 5월 크레모나 청소년오케스트라축제 초청공연 등으로 문화교류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사업성과

- 지자체 자매도시 대상 양 도시 공통 콘텐츠를 활용한 교류 확대
- 기존의 단순 공연 교류를 넘어 교류 분야·방법·대상에서 다양한 차원의 교류 증진 발판 마련
- 양 도시 축제 상호초청 준비로 지속적인 교류방안 마련

공연 및 전시 : 총 2,500여 명 관람

가야금 제작 설명회 : 150명 참여

후속사업

- 고령세계현페스티벌, 크레모나 청소년음악회, 스트라디바리 축제 등 양 도시 축제 및 행사에 상호초청 예정(2021년)

세계문화유산 우호협력도시 전통문화 교류 공연



분야	공연(백제기악)
참여 지자체	충남 공주시
사업수행기관	웅진문화회
교류지역	베트남 후에
주요 교류기관	후에 문화유산보존센터(HMCC), 후에 왕실예술단

추진일정

기간	2019년 4월 25일 - 4월 30일
프로그램	공연(1회)
진행일정	<p>2월 · 2018년 현지 교류기관 국내초청 공연을 계기로 후속교류 기획</p> <p>· 참여 인력 및 공연 장소·일정 확정</p> <p>3월 · 공연 세부구성 및 연출 방향 확정</p> <p>· 출국 준비 및 공연 리허설</p> <p>4월 · 후속 교류를 위한 양 도시 업무회의 4.27. 후에 문화유산보존센터</p> <p>· 백제기악 공연 4.29. 후에 왕실극장</p>

충남 공주의 웅진문화회가 베트남 후에문화유산보존센터(HMCC)의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면극 중 가장 오래된 백제기악 공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후에성에서 개최하였다. 웅진문화회는 지난 2018년 베트남 후에 왕실예술단을 초청해 공주, 부여, 홍성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나낙(Nha Nhac)'을 비롯한 베트남 전통 왕실음악을 선보인 바 있다. 2019년에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 베트남에서 웅진문화회를 초청하여 상호교류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백제기악은 6세기경 백제의 전통 탈춤으로, 불교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가면 쓰고 연극과 춤, 음악을 즐기는 궁중예악이다. 백제기악 공연은 우리 민속놀이의 길놀이해 해당하는 '교우도'로 시작하여, 등장인물들이 백제 음악인 수제천의 반주에 맞춰 불교를 포교하는 내용의 판놀이를 선보였다. 세속화된 파계승의 행실을 풍자하고 권선징악의 내용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등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작된 색다른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백제기악 공연(2019.4.29. 후에 왕실극장)



2019

삼국시대 백제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주의 웅진문화회는 1993년 설립되어 백제문화권과 관련해 지역대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공주와 부여가 합동 개최하는 종합예술제인 '백제문화제'에서 뮤지컬 <웅진 판타지아>, <무령>, 연극 <왕실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과 양국 상호이해 및 교류 진흥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베트남 후에는 베트남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의 황실 문화가 남아있는 도시로, 이곳의 역사 유적 전체가 199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베트남 왕조가 사라질 때까지 궁중음악으로 연주된 나낙의 명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나낙은 지난 2003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에 등재되었다. 후에는 백제역사지구, 송산리 고분군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공주와 닮은 점이 많아 교류 가능성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곳이다.

사업성과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시인 공주-후에 간 전통문화 공연을 통한 교류로 공주 전통 콘텐츠의 위상 제고
- 공주 전통문화유산인 백제기악의 가치 확산 및 양국의 전통문화 교류를 통한 문화 다양성 인식 제고
- 베트남공연예술가협회(VASS)-웅진문화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백제기악 공연: 1,000여 명 관람

후속사업

- 공주-후에 신규 우호협력도시 체결 논의(2021년)
- 세계 전통문화유산 축제 '후에 페스티벌' 참가 및 백제기악 공연 예정(2021년)

다시, 더 많이 나누다

2019년 순천 방문의 해 기념, 순천만 생태 기반 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확산 및 도시재생 기반 문화 도시 네트워크 협력·교류



사업개요

분야	전시(공예), 공연(융복합 무용극), 워크숍(공예, 식문화)
참여 지자체	전남 순천시
사업수행기관	두루미과학예술센터
교류지역	프랑스 낭트
주요 교류기관	낭트 한국의 봄 조직위원회,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추진일정

기간	2019년 5월 16일 - 6월 2일
프로그램	전시(11일), 공연(3회), 워크숍(2회)
진행일정	<p>3월 · 한국의 봄 현지 축제 담당자와 기획안 협의 · 공연 및 전시팀 구성 확정</p> <p>4월 · 한국의 봄 참가 준비 · 교류 프로그램 세부계획 확정 · 각종 계약, 임차 등 사업 준비 착수</p> <p>5월 · 한국의 봄 순천 컨퍼런스 5.16.~19. 코스모폴리스 복합관 · 개막 공연 및 음식 워크숍 5.17. 낭트시청, 코스모폴리스 복합관 · 순천 컨퍼런스 융복합 공연 5.18.~19. 코스모폴리스 복합관 · 공예 전시 및 워크숍 5.20.~30. 코스모폴리스 복합관 등</p> <p>6월 · 지속적인 순천 콘텐츠 개발 및 홍보</p>

전남 순천의 두루미과학예술센터가 프랑스 낭트 제7회 '한국의 봄' 축제에 참여했다. 낭트의 축제 조직위원회와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의 봄 축제는 한국문화 종합축제로, 매해 5~6월 낭트와 낭트 근교에서 개최된다. 두루미과학예술센터는 한국의 봄 축제와 연계해 순천 컨퍼런스를 열어 순천만 생태환경을 소개하고 흑두루미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물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낭트 코스모폴리스 복합관에서 개막한 컨퍼런스 첫날에는 한국의 남도 음식을 시식하는 오프닝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개막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어진 공연은 순천만 흑두루미를 담은 사진과 영상, 인형놀이, 흑두루미 창작무용, 국악을 융합한 마당놀이로, 흑두루미 '두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표현하였다. 순천만 컨퍼런스는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전통 탈 만들기 워크숍, 옷칠 공예 작품 전시, 현대무용 공연까지 풍부한 문화교류 행사가 이어졌다.

순천 컨퍼런스 융복합 공연(2019.5.18. 코스모폴리스 복합관)



순천은 람사르 국제협약을 토대로 세계 중요 습지도시를 인증하는 '람사르 습지도시'에 선정된 곳으로 지역의 자연과 생태환경에 관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된 두루미과학예술센터는 순천만 서식 동물과 흑두루미의 생태를 주요 소재로 과학과 예술을 융합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워크숍, 전시, 공연 등을 선보이는 문화예술기관이다. 환경융합예술 분야 연구자들과 협업하며 전문성을 제고하고, 두루미와 관련된 국제 공연단체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낭트는 2009년 순천과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온 프랑스 항구도시다. 순천은 2006년 낭트에 순천동산을 기증 조성하였고, 이에 낭트가 2009년 순천에 낭트정원을 만들어 독특한 형태의 정원 교류가 시작되었다. 2011년 낭트 '식물대축제'와 2013년 '순천만정원박람회'에 양 도시가 서로 참여하며 교류 관계가 점차 확장되었다.

사업성과

- 지자체 우호도시에서 열린 대규모 문화축제 참가, 순천만 생태환경 콘텐츠 기반 교류 실시
-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지역 콘텐츠의 국제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
- 순천-낭트 소재 대학교 간 업무협약(MOU) 체결로 상호방문 교류 준비

한국의 봄 축제: 총 4,770여 명 참여

순천 컨퍼런스 음식 워크숍: 30명 참여

순천 컨퍼런스 융복합 공연: 1,000여 명 관람

공예 전시 및 워크숍: 400여 명 참여

후속사업

- 순천만 생태관광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협력 및 상호방문 교류 프로그램 준비
- <2021년 순천만 국가정원 특별전> 전시 콘텐츠 제작 예정(2021년)

제9회 일본지용제



분야	포럼·작문 대회(시문학)
참여 지자체	충북 옥천군
사업수행기관	옥천문화원
교류지역	일본 후쿠오카, 교토, 오사카
주요 교류기관	후쿠오카 기타하라 하쿠슈 기념관, 교토 도시사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추진일정

기간	2019년 11월 13일 - 11월 16일
프로그램	세미나, 문학강연, 작문대회, 시 낭송회(각 1회)
진행일정	<p>5월 · 일본 측 관계자 제32회 국내 지용제 초청 방문 및 교류 필요성 논의</p> <p>6~7월 · 사업일정 및 내용 협의</p> <p>8월 · 프로그램 세부내용 확정</p> <p>9월 · 현지 사전답사 및 장소·일정 협의</p> <p>10월 · 사업진행 관련 유관기관 협조 요청</p> <p>11월 · 2019 정지용 문학포럼 11.13. 후쿠오카 기타하라 하쿠슈 기념관 · 정지용·윤동주 추모 행사 및 문학 답사 11.14.~15. 교토 도시사대학 · 제4회 정지용 한글백일장 및 문학강연 11.15. 주오사카한국문화원 · 한글백일장 참가자 낭송회 및 평가보고회 11.16. 오사카호텔 세미나실</p>

충북 옥천문화원은 시인 정지용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축제 '지용제'를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2019년에는 후쿠오카 기타하라 하쿠슈 기념관을 방문하고 '2019 정지용 문학포럼'을 개최하며 제9회 '일본지용제'의 시작을 알렸다. 먼저 '오래된 길에서, 새로운 길로!'라는 주제로 기타하라 하쿠슈, 정지용, 윤동주 시문학의 근원과 지향을 논하는 학술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유종인, 오석륜 등 한국 시인들과 일본의 문학 연구자들이 모여 윤동주, 정지용 시인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공유하고 토론하였다. 포럼이 끝난 뒤에 옥천문화원은 교토 도시사대학의 윤동주, 정지용 시비를 참배하며 두 시인의 흔적과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주오사카한국문화원에서 정지용 시인의 문학을 주제로 한 한글 작문 대회 '제4회 정지용 한글백일장'이 열렸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일본인 학생, 재일동포, 유학생 등이 백일장에 참가하였고 정지용 시인을 소개하는 문학강연, 시 낭송, 국악 연주가 합쳐진 공연까지 이어져 축제에 다채로움을 더했다.

제4회 정지용 한글백일장(2019.11.15. 주오사카한국문화원)



2019

옥천문화원은 정지용의 문학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 계발을 도모하고 있는 단체다. 가장 사랑받는 우리 시인 중 하나인 정지용의 고향 옥천에서 1988년부터 매년 정지용 문학축제 지용제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북아 문학인들을 초청해 정지용 국제 문학포럼을 열고,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시 낭송 대회, 한글백일장 등 국제문화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옥천문화원이 첫 회부터 주관하며 이끌어 온 지용제는 2019년도 충청북도 최우수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육성축제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교류지역 소개

제9회 일본지용제가 열린 교토는 정지용 시인뿐만 아니라 윤동주 시인이 유학했던 도시사대학이 있는 곳이다. 두 시인의 시비가 세워진 도시사대학에서 2008년 정지용 시인을 주제로 한 국제 문학포럼이 개최된 바 있고, 이후에도 꾸준히 정지용 시인을 매개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정지용 국제 문학포럼은 2018년 오사카, 2019년 후쿠오카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후쿠오카는 정지용의 시를 일본 『근대풍경』 잡지에 추천해 그가 시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운 일본 시인 기타하라 하쿠슈의 기념관이 있는 곳이다.

사업성과

- 일본지용제 9년 연속 개최 및 교류지역 확대를 통한 지역 콘텐츠의 지속적인 교류 기반 구축
- 옥천문화원-기타하라 하쿠슈 기념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교류 기반 마련
- 지용제 자료집 발간 및 아카이빙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 콘텐츠 개발 및 성과 관리

2019 정지용 문학포럼: 77명 참여

제4회 정지용 한글백일장: 120명 참여

후속사업

- 옥천-교토 지역대학 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교류 방안 논의
- 국내 지용제 개최 시 일본 관계자를 초청해 정지용 시인 및 지용제 지속 홍보 예정

다시, 더 많이 나누다

선린우호 해동성국 발해가 있다



분야	전시(시각예술), 공연(국악)
참여 지자체	경남 창원시
사업수행기관	발해1300호 기념사업회
교류지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요 교류기관	국립극동예술대학, 블라디보스토크 예술인연합회, 연해주미술관

추진일정

기간	2019년 8월 11일 - 8월 18일
프로그램	전시(5일), 공연(4회)
진행일정	<p>5월 · 공연 및 전시 참가자 선정</p> <p>6월 · 공연팀, 전시팀 정규 회의 진행</p> <p>7월 · 사업 일정 및 장소 확정 · 현지 사전답사 및 세부 협조사항 논의</p> <p>8월 · 최재형 기념비 제막공연 8.12. 고려인문화센터 최재형기념관 · 창원-블라디보스토크 교류전 <있다> 8.13~17. CYB 갤러리 · 광복절 기념식 식전공연 8.15.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 · 공연 <2019 별신대제> 8.16. 블라디보스토크 필하모닉극장 · 창원국악관현악단 버스킹 공연 8.17. 블라디보스토크 해양공원 · 미술관 작은음악회 8.17. 국립연해주미술관</p>

발해1300호 기념사업회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에서 '발해1300호' 대원들의 도전정신을 기리는 국제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의 최재형기념관에서 최재형 기념비 제막공연이 열려, 7인의 독립운동가가 3·1운동 당시 지은 가사를 노래한 <8호 감방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발해1300호를 소재로 한국 러시아의 선린우호 협력을 위해 제작된 공연 <2019 별신대제>는 블라디보스토크 필하모닉극장에서 열렸다. 본 공연은 창원국악관현악단이 창작한 추모극으로, 비나리, 판굿 등 국악 시나위와 해상 안전을 기원하는 민속축제인 마산성신대제를 통해 발해1300호의 선원들을 위로하고 기억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또한 러시아 CYB 갤러리에서 창원미술협회와 블라디보스토크 작가들의 작품 약 30여 점을 선보인 미술 교류전 <있다>가 개최되어 눈길을 끌었고, 광복절 당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이 주최한 광복절 기념식에서 초청공연을 진행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최재형 기념비 제막공연(2019.8.12.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최재형기념관)



2019

발해1300호 기념사업회는 발해 건국 1300년을 기념하여 옛 해상교역 항로를 재현하기 위해 항해한 4명의 발해1300호 대원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발해1300호 대원들은 1997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부산까지 바람과 해류의 힘으로만 항해하던 도중 표류, 사망하여 안타까움을 낳았다. 발해1300호 기념사업회는 이들의 도전정신이 잊히지 않도록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주요 항구도시이자 일제강점기에 연해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중심지였다. 안중근 열사가 의거한 블라디보스토크역, 독립운동가 이상설 기념비와 최재영 생가, 독립운동 근거지였던 신한촌 기념비 등이 있어 우리 역사와 관련이 깊은 곳이다. 러시아 국립극동예술대학교는 1999년 '발해1300호 전시관'을 설치하여 발해1300호 항해 과정 및 그들의 도전, 창조, 개척정신을 알리고 있다. 현재도 많은 고려인이 집단거주하고 있으며, 2019년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창원과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사업성과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인 마산성신대제를 활용한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교류로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위상 제고
- 기존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한 교류 확대 및 양국 전문예술인 간 다양한 방식의 교류 시도
- 문화교류를 계기로 경제·교육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양 도시 다방면 교류 기반 구축

최재형 기념비 제막공연: 300여 명 관람
 창원-블라디보스토크 교류전 <있다>: 70여 명 관람
 공연 <2019 별신대제>: 300여 명 관람
 창원국악관현악단 버스킹 공연: 500여 명 관람
 미술관 작은음악회: 100여 명 관람

후속사업

- 러시아-연해주 미술연합회 주최로 창원대학교 예술대학, 국립극동예술대학교 간 공동 국제전시 개최(2019.9.22.~28.)
- 양 도시 공연 및 전시 교류 확대를 위한 콘텐츠 교류 방안 논의

다시, 더 많이 나누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택견&사물놀이 한-폴란드 국제 문화예술 교류



사업개요

분야	공연·워크숍(택견, 사물놀이)
참여 지자체	충북 충주시
사업수행기관	택견보존회
교류지역	폴란드 그단스크
주요 교류기관	그단스크 대학스포츠연맹, 그단스크 33학교

추진일정

기간	2019년 6월 11일 - 6월 18일
프로그램	공연(3회), 워크숍(1회), 강습(1회)
진행일정	<p>2월 · 교류도시 선정 및 현지와의 교류 방향성 논의 · 공연팀 섭외</p> <p>3월 · 사업 참가자 역할분담 · 그단스크 협력기관과 교류 협의</p> <p>4~5월 · 사업일정 확정 · 각종 예약, 장소 임차 등 사업 준비 착수 · 홍보물 제작 및 현지 홍보 착수</p> <p>6월 · 택견 시범 및 사물놀이 시연, 택견 강습 6.14. 그단스크 33학교 · 택견과 사물놀이 야외공연 6.15. 포럼 그단스크 · 합동공연 <품>, 폴란드 무예시범팀 시범 6.15. 그단스크 팔하모닉극장 · 합동공연 <품> 6.17. 그단스크대학교</p> <p>8~11월 ·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에 폴란드 선수 초청, 택견 홍보대사의 폴란드 파견 등 후속교류 진행</p>

충주 택견보존회가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택견과 사물놀이를 중심으로 문화교류를 펼쳤다. 충주시립택견단과 사물놀이팀 '물개'가 공동 창작한 공연 <품>이 그단스크 필하모닉극장과 그단스크대학교에서 열렸고, 더 넓은 시민층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시연, 강습 등도 잇따랐다. <품>은 택견의 몸짓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이에 맞춰 사물놀이를 연주하는 융복합 공연으로, 택견의 주요 동작인 본때뵈기, 견주기, 육모술 등에 현대적인 무대 연출까지 더해졌다. 공연은 그단스크 시내의 대형 광장에서 야외공연으로 진행된 후, 그단스크 필하모닉극장, 그단스크대학교 대강당에서 차례로 이어지며 다양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야외공연에 5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필하모닉극장과 그단스크대학교에서 열린 공연은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단스크 33학교에서 열린 택견 강습에서는 택견 기본 스텝, 호신술 마주메기기, 호흡법을 배울 수 있었고, 33학교 초·중·고 학생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택견과 사물놀이 야외공연(2019.6.15. 포럼 그단스크 앞 광장)



충주 택견보존회는 국내 택견의 중심지로 자리잡은 충주에 2013년 설립된 택견 보존 단체다. 무술 분야 중 유일하게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된 택견을 보존하기 위해 전수 교육, 전승자 양성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택견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후로 카자흐스탄, 브라질 등 해외 지역과 무예교류를 진행하며 택견 전승 및 보급사업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2019년 한국과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폴란드는 40년 전부터 태권도가 보급되어 지금은 핵심 스포츠로 자리잡은 나라다. 한국의 무예 연맹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매년 '폴란드 오픈 국제태권도대회'가 열린다. 2015년 폴란드 비드고슈치에서 주폴란드한국문화원 주최로 '태권도 가족 품새 대회'가 열려 성황을 이룬 바 있다. 폴란드의 항구도시 그단스크도 전통무예에 관심이 많아, 지난 2017년 한국 태권도 사범들을 초청해 이곳에서 강습회를 열기도 했다. 나아가 충주는 국제 종합무예대회인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에 그단스크 스포츠연맹 선수들을 초청하면서 그단스크와의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했다.

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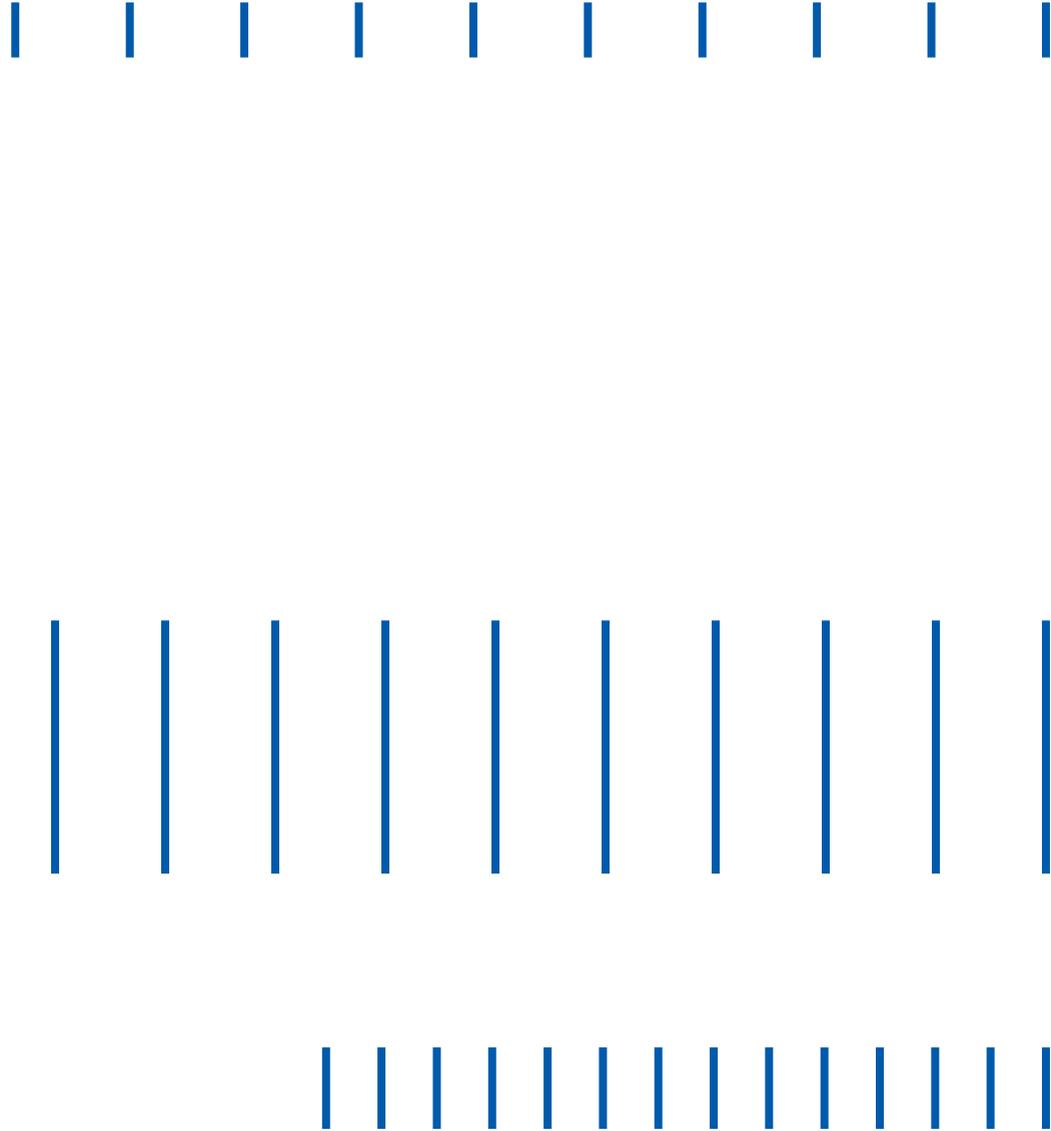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택견 및 사물놀이를 활용한 무예-공연 융합 콘텐츠를 통해 한국 택견체험 기회 제공
- 충주-폴란드 상호초청·파견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기반 구축 및 해외 파급력 확인
- 충주-그단스크 업무협약(MOU) 체결 및 택견의 동유럽 진출을 위한 활성화 방안 논의

합동공연 <품>: 총 1,000여 명 관람
 양국 체육인 워크숍: 100여 명 참여
 택견 강습: 250여 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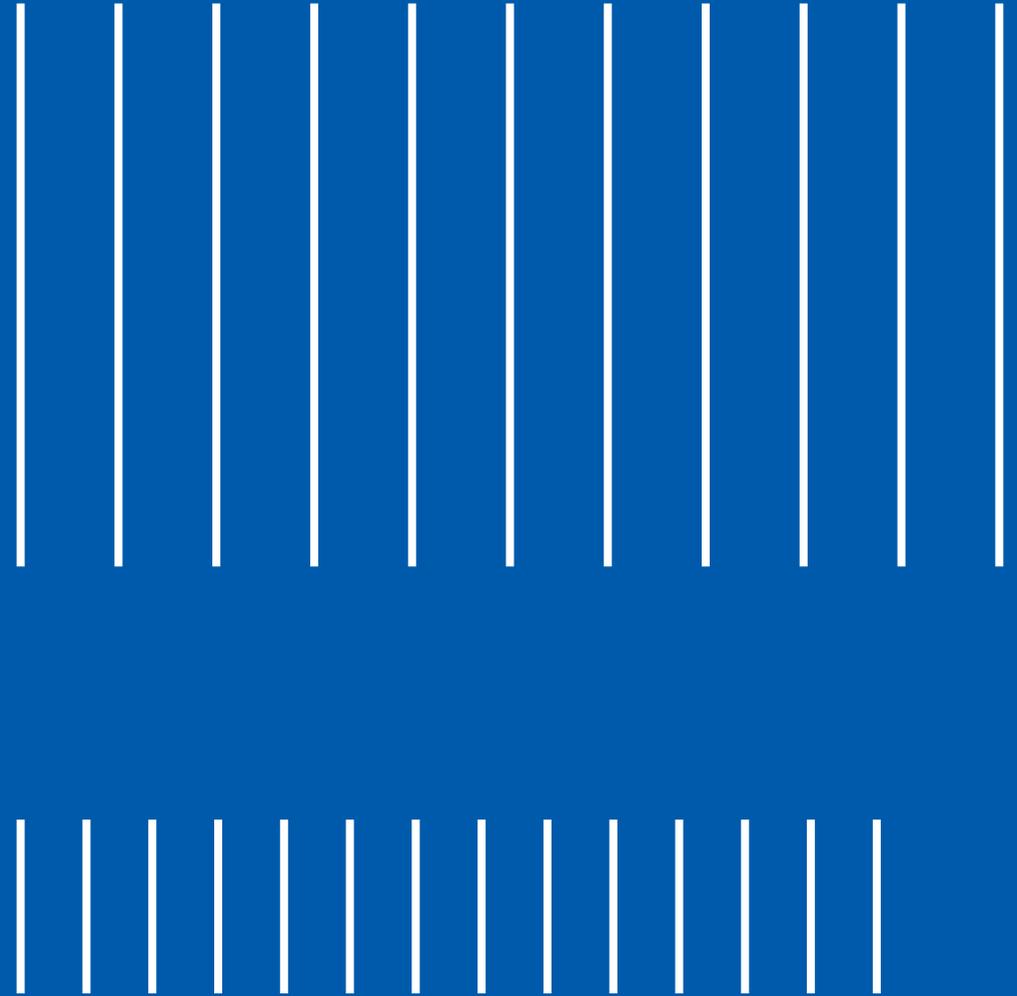
후속사업

-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에 폴란드 선수 초청 및 후속교류 진행(2019.8.30.~9.6.)
- 충주 택견 사범의 폴란드 파견을 통한 택견 보급활동 확대 및 폴란드 내 택견 교실 개설 논의 (2019.9.20.~11.26)

2020년



**멀리서
대화를 이어가다**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모스크바 초청 고성농요 “차이콥스키 음악원” 영상공연



2020

사업개요

분야	공연(고성농요)
참여 지자체	경남 고성군
사업수행기관	고성농요보존회
교류지역	러시아 모스크바
주요 교류기관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

추진일정

기간	2020년 8월 20일 - 12월 31일
프로그램	영상 제작 및 온·오프라인 상영
진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8~9월 · 공연 영상 제작 착수 10월 · 1차 영상 촬영 및 자막 의뢰 · 2차 영상 촬영 · 전체 평가 및 보완사항 현지 협의 11월 ·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에 영상 전달 12월 · 온라인 플랫폼 영상 업로드 · 현지 관계자 대상 영상 상영회 12.5.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

멀리서 대화를 이어가다

고성농요보존회가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과 공연 영상 상영을 통해 음악교류를 진행했다. 본래 모스크바에서 고성농요 공연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연 영상을 제작·상영하는 비대면 교류로 변경되었다. 먼저 고성의 농업문화에서 발전한 고성농요와 한국의 전통무용, 사물놀이가 고루 담긴 영상 <고성농요>를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에 보내 상영하였고, 온라인 플랫폼 상영(유튜브 채널 '고성농요')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현지인에게 낯선 고성농요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성의 들녘, 산, 바다를 공연 영상에 담으며 농경문화가 발전하게 된 배경을 풀어냈고, 전라도 민요 음계인 육자배기토리와 경상도의 메나리토리가 섞여들어 독특한 소리를 탄생시킨 고성농요의 특징을 다양한 언어로 설명했다. 또한 예술적인 영상 기법을 활용하고 농요 연희 동작과 명인의 소리를 새롭게 연출하여 대중성과 현대적인 면모를 적절히 아울렀다.

<고성농요> 촬영 현장(2020.10.31.)



2020

고성농요보존회는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된 고성농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공연, 전수관 운영, 전수 교육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민속음악의 우수성을 알려온 전통 문화단체이다. 미국,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각국 전통·현대음악 기관과 합동공연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2020년에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러시아와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공연을 추진하였다.

교류지역 소개

러시아 모스크바는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 이번 교류가 진행된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은 1866년 설립된 이래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알렉산드르 스크랴빈 등 러시아 음악의 거장을 길러낸 역사적인 음악기관이다. 고성과 모스크바의 인연은 2017년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된 국제 민족음악제 '샤르크 타로날라리(동방의 선율)'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대회에서 고성농요가 1위를 차지하였는데, 심사위원이었던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의 마카르타 카라티기나 박사가 고성농요를 "때 묻지 않은 인류의 소리"라고 높이 평가하며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이 교류의 발단이 되었다.

사업성과

- 2017년 국제 민족음악제 '샤르크 타로날라리' 우승을 발판으로 고성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 한-러 수교 30주년 초청사업을 계기로 비대면 국제교류 최초 실시
- 현지 전문가·전공자를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이해 증진 및 위상 제고

후속사업

-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방한 시 농요와 서양음악을 접목한 새로운 합동공연 예정(2021년)
- 양국 음악 관계자, 전공자, 연주자 간 1년 단위 상호 교류방문 추진
-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고성농요보존회 간 지속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예정(2021년)
- 고성과의 기존 교류내역이 있는 국가의 문화원을 대상으로 영상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파급 예정

멀리서 대화를 이어가다

한·러 수교 30주년 러시아 우수리스크 시립극단 창작연극 합동 영상공연



분야	공연(연극)
참여 지자체	경기 군포시
사업수행기관	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
교류지역	러시아 우수리스크
주요 교류기관	러시아 우수리스크 시립극단

추진일정

기간	2020년 9월 7일 - 12월 31일
프로그램	연극 공동창작, 제작발표회(1회), 공연 영상 온라인 상영
진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월 · 연극 집필 완료 및 비대면 교류 준비 9월 · 희곡 러시아어 번역 작업 10월 · 러시아 배우 영상 촬영 진행 11월 · 러시아 배우 촬영본을 토대로 한국 배우 촬영 12월 · 합동공연 영상 촬영·편집 및 자막 제작 · 보도자료 배포 · 비대면 제작발표회 12.22. 군포문화관 · 양국 온라인 플랫폼에 영상 동시 업로드 12.29.

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와 러시아 우수리스크 시립극단이 합동공연 <페치카 최재형>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페치카 최재형>은 러시아와 한국이 공유하는 역사와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연극으로,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일생과 연해주 활동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코로나19로 연극 창작과 공연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했기에, 양국 극단은 멀리서 힘을 합쳤다. 먼저 러시아어로 번역된 각본으로 러시아 연출가가 러시아 배우들을 지도했고, 러시아 배우의 연기 실연 영상을 배역별로 촬영했다. 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는 이를 건네받아 러시아 배우 영상을 촬영장 스크린에 띄우고, 영상 속 상대역의 연기에 맞추어 한국 배우가 배역을 수행하도록 했다. 크로마키와 편집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양국 배우의 연기가 자연스럽게 교차되는 새로운 제작 방식을 시도했다. 작품 제작자와 관계자들은 군포문화관에서 비대면 제작발표회를 열어 완성된 영상을 함께 감상하였고, 영상은 한국, 러시아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더 많은 관람객에게 공개되었다.

합동공연 <페치카 최재형> 촬영 현장(2020.12.1.)



2020

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는 군포 연극예술의 발전을 위해 연극인 육성, 연극 교류 등을 실시하는 단체이다. 군포는 항일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데, 특히 우수리스크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위해 한글 사전 보내기, 책 보내기 운동을 진행해왔다. 2002년부터는 교류 지형을 확장하여 연극 공연을 중심으로 교류하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우수리스크는 극동 러시아 연해주의 교역 도시이며 지금도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국 독립운동의 유적이 가장 많이 보존된 도시 중 하나다. 군포는 항일운동의 역사를 공유하는 연해주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추진해왔는데, 2002년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자치회에 소속된 아리랑무용단 공연을 군포에 초청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한국연극협회가 연출한 <그 여자의 소설>을 우수리스크 시립극장에서 공연했을 때 시립극장 측에서 최재형의 일생과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에 관심을 보여 이번 교류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성과

- 영상편집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차원의 연극 공동제작 추진
- 극동 러시아 지역과 공유하는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러시아 간 지속가능한 교류 환경 조성

후속사업

- 지자체 차원의 상호교류를 위해 군포-우수리스크 업무협약(MOU) 체결 예정
- 군포-우수리스크 간 희곡 <아관파천> 공동집필 및 역사포럼 개최 예정(2021년)
- 양 도시 예술가 간 지속적인 창작교류를 위한 워크숍 및 합동공연 추진

멀리서 대화를 이어가다

한·러 문화 실크로드(Silk road)



사업개요

분야	공연·세미나(남도민요)
참여 지자체	전남 목포시
사업수행기관	목포문화재단
교류지역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요 교류기관	글린카소년합창단

추진일정

기간	2020년 9월 15일 - 12월 21일
프로그램	영상 제작 및 온라인 상영, 강연 영상 제작, 온라인 세미나
진행일정	<p>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도들노래, 진도북놀이, 성주풀이, 육자배기, 진도아리랑 영상 콘텐츠 제작 · 목포문화재단-글린카소년합창단 서면 업무협약(MOU) 체결 <p>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편집 및 러시아어 자막 제작 · 온라인 플랫폼 개설 및 영상 업로드 <p>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강술래 영상 콘텐츠 제작 <p>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전통 문화예술 유사성 및 교류 방향성에 관한 강연 영상 제작 및 실시간 비대면 세미나 진행 12.8. · 양 도시 온라인 플랫폼 업로드 12.18.

2020년 팬데믹 시대에 목포문화재단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남도민요 공연 영상으로 문화교류를 이어갔다. 본래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 글린카소년합창단, 목포시립무용단, 아시아민속음악진흥회 등과 현지 합동공연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문화교류 행사로 기획 방향을 선회하였다.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구성된 홈페이지와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채널 'KOREA-RUSSIA Culture Silkroad')을 통해 대표적인 남도민요이자 흥겨운 발일 노래인 남도들노래, 국내 유일한 북춤 진도북놀이, 남도의 한(恨) 정서를 음악으로 승화한 성주풀이, 육자배기, 강강술래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러시아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영화 <신과 함께 2>에 묘사된 가택신 '성주신'의 퍼포먼스를 뮤직비디오로 풀어낸 성주풀이 영상 <성주신을 위한 춤>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현지 관계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양국 전통 문화예술의 유사점과 교류 방향성을 논하는 강연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했고, 실시간 화상회의에서 무용, 협력공연 등 향후 교류 분야와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남도들노래> 촬영 현장(2020.10.19.)



2020

목포문화재단은 국악, 연극 공연을 비롯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 예술단체, 지역예술인들을 적극 지원하며 목포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는 문화예술기관이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한 목포문화재단은 지역 기반 국악단체인 목포시립무용단, 아시아민속음악진흥회를 중심으로 남도민요 퓨전공연을 제작해 양 지역 문화교류에 활로를 열었다.

교류지역 소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국민악파를 창시한 미하일 글린카,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등 세계적 작곡가를 낳은 음악의 도시다. 이 중 미하일 글린카의 이름을 따 설립된 글린카소년합창단은 1946년 출범 이후 유럽 전역을 누비며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성장했다. 목포문화재단은 미하일 글린카의 음악이 지닌 풍부한 감정과 동양적인 정서가 남도민요와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글린카소년합창단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였다.

사업성과

- 2020년 비대면 교류 및 2021년 초청 교류를 위한 목포문화재단-글린카소년합창단 업무협약(MOU) 체결
- 러시아-남도 전통 문화예술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교류 콘텐츠 모색 및 활용 기반 마련

후속사업

- 목포문화재단-글린카합창대학 간 청소년 문화교류 예정
- 한-러 청소년 우호 음악회 및 청소년 교육방문단 교류 계획
- 목포-상트페테르부르크 문화예술 인적 네트워크 교류 프로그램 마련

멀리서 대화를 이어가다

역사를 찾아 떠나는 아리랑 여행



사업개요

분야	다큐멘터리(독립운동)
참여 지자체	경남 밀양시
사업수행기관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교류지역	중국 한단
주요 교류기관	중국 한단 의사교무판공실(외사국), 중국 한단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추진일정

기간	2020년 8월 20일 - 12월 31일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진행일정	<p>8월 · 비대면 교류내용 합의 및 세부 프로그램 논의 · 다큐멘터리 구성 확정 및 출연자·장소 섭외</p> <p>9~10월 · 1부 '밀양의 역사를 만나다' 국내 촬영 · 2부 '독립운동가를 만나다' 국내 촬영</p> <p>11월 · 3부 '독립 그 역사의 현장을 가다' 현지 촬영</p> <p>12월 · 4부 '대한독립 만세'(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촬영</p>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은 대한민국의 항일운동 역사를 공동 기반으로 중국 한단과 문화교류를 진행했다.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 윤세주 열사가 항일운동을 펼쳤던 중국 한단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밀양 문화와 항일운동을 담은 종합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 떠나는 아리랑 여행>을 공동으로 제작했다. 1부는 밀양의 유·무형 문화재와 밀양 시민들의 인터뷰 등을 담아 밀양 역사와 문화를 친절히 소개했다. 2부에서는 윤세주 열사 생가터를 배경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풀어내고 윤세주 열사의 후손과 나눈 이야기, 윤세주 열사가 활약했던 3·13 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도 담았다. 한단의 협력기관이 직접 촬영한 3부에서는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에서 독립운동의 흔적을 따라가며 한단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역사의 가치를 되돌아보았다. 마지막 4부는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양 도시가 내년에 합작하게 된 공연 <독립군 아리랑>의 갈라쇼 영상을 담아, 앞으로 진행될 문화교류를 미리 엿볼 수 있었다.

다큐멘터리 1부 '밀양의 역사를 만나다' 촬영 현장(2020.10.18.)



2020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은 2013년 설립되어 밀양아리랑과 밀양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공연, 축제,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밀양의 독립운동 역사에 주목한 <독립군 아리랑>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특히 밀양아리랑 콘텐츠에서 출발한 상설공연 <날쭉보소>는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아 전국적으로 30회 이상 공연되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중국 한단은 윤세주 열사의 묘소와 항일투쟁 유적지가 대거 위치한 곳으로, 2004년 밀양과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동질성으로 항일운동 문화교류의 최적지로 평가되었다. 특히 한단의 진기로예열사능원은 윤세주 열사, 진광화 열사를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된 곳으로 우리 역사와 기억을 오래전부터 보존하고 있다. 2004년 자매결연 체결 당시 한단과 밀양은 문화, 체육, 역사 분야 교류 활성화를 다짐하였는데, 아직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성과는 미진한 편이었다. 2020년 교류를 통해 발견한 양 도시의 문화적 공통점은 앞으로 이어갈 교류의 양상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사업성과

- 양 도시 항일운동 연관성 및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교류 기반 마련
- 2021년 합동공연 예정인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사전 공개로 후속교류 준비
- 양국 다방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확대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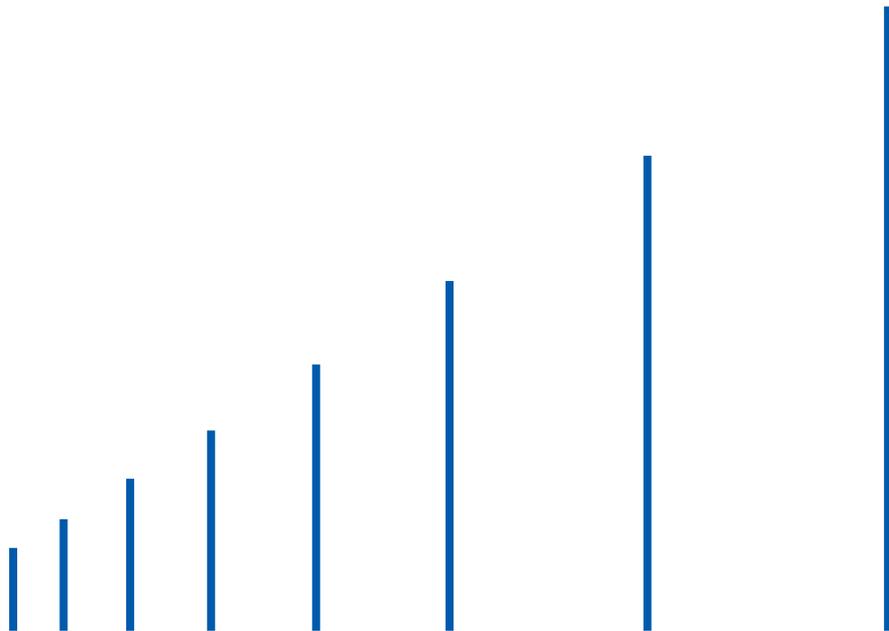
후속사업

-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합동공연 예정(2021년)
- 밀양문화원-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예정
-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한단 진기로예극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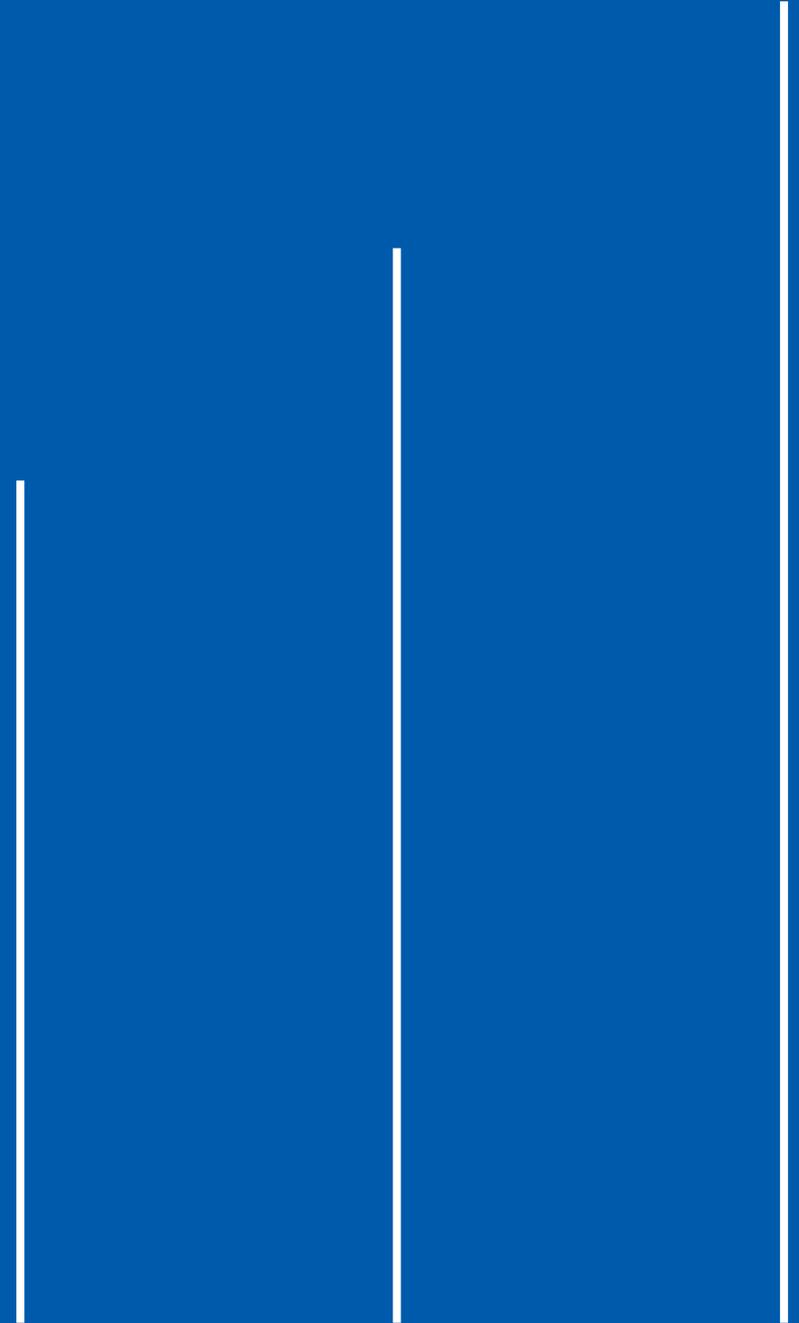
멀리서 대화를 이어가다

2018~2020년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우수사업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기관들은 매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대 2곳까지 우수사업으로 선정된다. 2018~2020년 동안 상호 문화교류에 적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긴밀한 관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한 6개 지역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2년 연속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한 4곳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최초로 비대면 교류를 진행한 2곳의 새로운 시도를 살펴보았다.



연이은 만남, 깊이를 더하다



2018 영월 동방채묵 아트페스타



2019 별마로 7개월 그리다

1. 지역 콘텐츠의 국제교류 사업화 및 인지도 제고

-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 기념 한·중·일 미술전시 <동방채묵전>을 시각예술 축제로 확대 및 브랜드화
- 한라방 지구 내 LED 영상 광고 등 현지 측 적극적 홍보를 통한 지역 콘텐츠 인지도 제고

2. 사업 규모·방식의 확대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 전시 장소, 참여작가, 작품 구성의 확대로 중국 내 새로운 형태의 미술전시 개최
- 상호방문 레지던시 운영, 작가 간 심화교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3. 해외 네트워크 확보로 안정적인 교류 발판 마련

- 2018년 영월-웨이하이 우호교류 협약체결로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교류 기반 구축
- 양국 미술협회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후속 교류사업 추진으로 중장기적 협력 토대 마련



공공미술 설치(2018.12.3.~10. 웨이하이 한라방 지구)

2018~2020년 우수사업

영월 동방채목 아트페스타

분야	전시(시각예술), 공연(융복합)
참여 지자체	강원 영월군
사업수행기관	영월문화재단
교류지역	중국 웨이하이
주요 교류기관	웨이하이미술협회

추진일정

기간	2018년 12월 8일 - 12월 16일
프로그램	전시(9일), 공연(4회), 세미나(1회), 공공미술(벽화) 설치
진행일정	<p>8월 · 현지 협력기관 대상 사업 방향성 및 협조 논의</p> <p>9월 · 사업 참가자 구성 완료 · (1차 사전답사) 공연-전시 장소 점검, 사업 세부내용 현지 협의 등</p> <p>10월 · 공공미술 설치 논의 · 각종 안허가 사항 점검 등 사전준비</p> <p>11월 · (2차 사전답사) 공공미술 진행상황 점검, 작가 미팅, 홍보계획 협의 등</p> <p>12월 · 한-중 국제미술교류전 12.8.~16. 국립경주미술관 · 공공미술 설치 12.3.~10. 한라방 출입구 · 동방채목 드로잉쇼 공연 12.8. 웨이하이 중심가 쇼펍몰 · '지역 미술교류를 통한 글로벌 확장성과 콘텐츠 구성에 대한 담론' 세미나 12.8. 국립경주미술관</p>

연이은 만남, 깊이를 더하다

영월문화재단이 중국 웨이하이에서 양국의 동양 미술을 주제로 축제 '영월 동방채목 아트페스타'를 개최하였다. 영월 동방채목 아트페스타는 한국과 중국의 작가 150여 명이 참여한 동방채목 전시, 영월 풍속화 벽화 제작, 드로잉쇼 공연, 향후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웨이하이 국립경구미술관에서 열린 한-중 국제미술교류전에서는 영월의 지역 작가를 포함한 한국 작가 65명, 웨이하이미술협회 소속 작가 62명이 총 152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웨이하이 한락방 지구의 한 건물 외벽에 대형벽화를 그리고, 춤과 서예가 융합된 드로잉쇼 공연을 펼치며 두 지역의 뜻깊은 만남을 기념하였다. 영월미술협회, 웨이하이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가 참여한 세미나에서는 후속 교류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열띤 교류를 기약하였다.

한-중 국제미술교류전(2018.12.8. 중국 국립경구미술관)



2018~2020년 우수사업

영월문화재단은 영월의 지역문화 예술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지역문화 예술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문화기관이다. 2016년 설립되어 세계적인 사진 축제 '동강국제사진제'를 개최하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영월에서 한·중·일 <동방채목전>이 열렸는데, 이때 교류를 발판 삼아 웨이하이와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였다.

교류지역 소개

중국 산둥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웨이하이는 중국 도시 중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거리가 가까운 덕에 통일신라 시대부터 왕래가 있었고, '신라방'이라고 불리는 신라인의 거주지도 있었다. 신라방은 '한라방'이라는 이름의 코리아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국가 AA급 관광 및 중점 문화산업특구로 지정되었다. 최근 신흥 경제문화 도시로 떠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웨이하이 미술관, 류군미술관, 웨이하이 국립경구미술관 등의 예술기관이 모여있어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났다.

사업성과

- 평창올림픽 개최기념 한·중·일 전시 <동방채목전>을 시각예술 축제로 확대 및 브랜드화
- 양국 미술협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후속 교류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간 장기적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 마련
- 영월-웨이하이 우호교류 협약 체결(2018.12.8.)

한-중 국제미술교류전: 총 4,600여 명 관람

동방채목 드로잉쇼 공연: 일평균 300여 명 관람

'지역 미술교류를 통한 글로벌 확장성과 콘텐츠 구성에 대한 담론' 세미나: 총 150명 참석

후속사업

- 영월문화예술회관에 중국 산둥성 어린이 미술교실을 초청, 탐방 프로그램 진행 (2019.1.25.~26.)
- 2019년 양 지역 미술협회 간 미술 레지던시 및 국제교류전 진행(2019.6.18.~10.12.)



중국 작가 국내 레지던시 입주(2019.6.18. 영월 예술창작스튜디오)

별마로 7개월을 그리다

분야	전시·레지던시(시각예술)
참여 지자체	강원 영월군
사업수행기관	영월문화재단
교류지역	중국 웨이하이
주요 교류기관	웨이하이미술협회

추진일정

기간	2019년 6월 18일 - 10월 12일
프로그램	국내 전시(2회), 해외 전시(2회), 레지던시 운영
진행일정	<p>3~4월 · 현지와 교류내용 확대 및 프로그램 논의</p> <p>5월 · (1차 사전답사) 현지 관계자 업무논의, 레지던시 참여작가 협의 등</p> <p>6월 · (1차 레지던시) 중국 작가 입주 및 <별마로 7개월을 그리다> 개막 6.18.~25. 영월 예술창작스튜디오 · 한-중 청소년 미술 전시회 개최</p> <p>7월 · (2차 사전답사) 현지 미술관 공동전시 논의, 축제 연계 홍보논의, 레지던시 공간 점검 등</p> <p>8~9월 · (3차 사전답사) 작품 운송, 전시장 세팅 등 최종 점검 · <별마로 7개월을 그리다> 2차 전시 8.10.~16. 휘목미술관 · (2차 레지던시) 영월 작가 입주 8.5.~9.4. 류곤미술관 · <별마로 7개월을 그리다> 3차 전시 8.29.~9.6. 국립경주미술관, 류곤미술관</p> <p>10월 · (3차 레지던시)중국 작가 입주 및 교류 10.4.~12. 휘목미술관</p>

2018년 중국 웨이하이에서 '영월 동방채목 아트페스타'를 개최한 영월문화재단이 2019년에도 웨이하이와 미술교류를 이어갔다. 교류 첫해보다 전문화된 미술교류에 초점을 두고, 레지던시와 교류전 <별마로 7개월을 그리다>를 양국에서 번갈아 진행하였다. 먼저 6월에 중국 작가 3명이 영월을 방문하여 영월 예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했다. 같은 달 영월미술협회와 웨이하이미술협회 소속 작가 총 47명의 작품으로 첫 번째 교류전을 열어 영월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작품 100여 점과 양 지역 학생들의 작품 50여 점을 함께 선보였다. 이어서 국내 작가 2명이 웨이하이를 답방해 웨이하이 류곤미술관 레지던시에 참여했고, 전북 부안 휘목미술관에서 2차 국내 교류전이 열렸다. 웨이하이 류곤미술관과 중국 국립경구미술관에서 동시에 개최된 최종 교류전은 일반 관람객만 6,000명 이상 방문했다. 이번 교류로 영월의 미술과 문화를 알렸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작가는 웨이하이를, 중국 작가는 영월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중 교류전 <별마로 7개월을 그리다> (2019.8.29. 웨이하이 류곤미술관)



2018~2020년 우수사업

영월문화재단은 동방채목을 영월의 지역문화 브랜드로 기획하여 중국 웨이하이와 2년 연속 문화교류를 진행하였다. 웨이하이미술협회와 교류하며 국제 문화예술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교류로부터 파생되는 관광, 비즈니스 등 경제효과 창출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내 지역사회의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펼친 공로로 한국문화예술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교류지역 소개

동방채목 아트페스타를 계기로 영월과 교류 물꼬를 튼 중국 웨이하이는 영월 경제사절단을 '한-중 경제문화주간 축제'에 초청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영월 경제사절단은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축제의 주요 행사에 참가하였다. 사절단 방문을 통해 2018년에 맺은 양 도시의 문화교류 협약에 이어 예술, 경제 분야의 교류 기반을 다방면으로 구축하였다.

사업성과

- 양국 미술협회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후속 교류사업 추진으로 영월 국제문화교류 성과 확대
- 중국 내 새로운 형태의 미술전시 개최 및 현지 측 적극적 홍보를 통한 지역 콘텐츠 인지도 제고
- 영월 기업 경제사절단의 웨이하이 방문을 통한 예술교류와 경제교류의 시너지 효과 발생

전시 <별마로 7개월을 그리다>: 총 10,200여 명 관람(국내 1,920명, 중국 8,280명)

후속사업

- 웨이하이미술협회-영월미술협회 간 상호교류 전시 추진 예정(2021년)
- 영월 동강국제사진제에 웨이하이 사진작가 초청 예정(2021년)
- 지역 문화예술 시장의 성장을 위해 중국의 대표적인 아트페어 참가 예정(2021년)

연이은 만남, 깊이를 더하다

2018

2018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이천도자기명장 도자 제작 시연



2019

도자기 제작시연 2탄 파리 루브르 이천도자기명장 세계를 빛다

1. 유럽 최대 공예박람회 2년 연속 참가로 지역 콘텐츠 우수성 확대

- 파리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연속 참가로 세계 공예시장 내 인지도 향상
- 유럽 문화예술계 유력 인사 다수 관람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

2. 다양한 현지 문화예술기관 네트워크 확보로 사업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 프랑상공예장인협회, 세브르 국립도자기요업소 등 유럽 주요 도예시장 핵심 네트워크 마련으로 안정적인 해외진출 기반 구축

3. 지속적인 국제무대 진출 및 한국 대표 콘텐츠의 가능성 확인

-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국제박람회, 왕실공예품박람회 등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 참가를 통한 지역 콘텐츠 경쟁력 확대
- 이천 도자기 작품 기증 및 판매를 통한 문화예술 파급력 증대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도자 제작 시연(2018.10.25. 카루젤 드 루브르 홀)

2018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이천도자기명장 도자 제작 시연

분야	전시·제작 시연(도자)
참여 지자체	경기 이천시
사업수행기관	이천도자기명장회
교류지역	프랑스 파리
주요 교류기관	프랑스공예장인협회, 파리도예인협회, 국립세브르도자기요업소 등

추진일정

기간	2018년 10월 23일 - 10월 31일
프로그램	전시 및 제작 시연(5일)
진행일정	<p>7월 · 2018년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참가 신청 · 프랑스 공예장인협회 협력 요청 · 사업 참가자 구성 완료</p> <p>8월 · 박람회 부스 디자인 및 시연행사 기획 · 전시작품 선정 및 홍보책자 기획</p> <p>9월 · 현지 사전답사 및 장소 점검, 세부내용 협의 · 작품 및 시연 물품 현지 운송</p> <p>10월 · 보도자료 배포 및 현지 언론사 인터뷰 · 도자 제작 시연 10.23. 국립 고등응용예술학교 ·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도자 제작 시연 및 전시 10.25.~28. 카루젤 드 루브르 홀 · 이천 자매도시 프랑스 리모주 방문 10.29. · 국립 세브르도자기공방 방문 10.31.</p> <p>11~12월 · 이천도자기명장 작품 기증(프랑스 한국대사관 등) · 2019년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참가 준비</p> <p>21년 1월 · 다큐멘터리 영상 편집 완료 및 배포</p>

프랑스공예장인협회가 주관하는 파리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에 경기 이천의 이천도자기명장회가 참여해 도자 제작 시연과 전시를 선보였다. 이천도자기명장회 소속 7인의 이천도자기명장은 파리 루브르박물관 지하에 연결된 카루젤 드 루브르 홀에서 도자 제작 과정을 나누어 맡아 점토를 빚고, 건조하고, 정형하는 모습을 빠짐없이 보여주었다. 제작 시연에 더해 이천도자기명장들의 작품 23점이 전시되어 도자 제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제작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천도자기명장회는 프랑스 국립 고등응용예술학교, 국립 세브르도자공방, 이천 자매도시 리모주 등을 방문해 프랑스 내 도자 공방들을 견학하고 프랑스 도자 명장들과 도자 기술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도자 제작 기술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소개한 결과,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 마크롱 여사가 방문해 제작 시연을 관람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동양예술 박물관인 세르누치박물관에서 작품 소장을 문의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도자 제작 시연(2018.10.26. 카루젤 드 루브르 홀)



2018~2020년 우수사업

2006년 설립된 이천도자기명장회는 이천이 직접 선정한 이천도자기명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도예인 단체다. 30년 이상 전통 도자 제작에 종사한 장인들로만 구성되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예와 민속예술 도시로 지정된 이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 징더전 국제도자박람회', 미국의 예술 박람회인 '아트 산타페' 등 국제 행사에 참여하며 이천의 도자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프랑스 파리는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각종 예술품이 모여드는 중심지다. 공예, 디자인의 세계적 허브 역할을 맡아 '메종&오브제', '공예예술비엔날레',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메종&오브제에 2008년부터 꾸준히 참여하였고, '제2회 공예예술비엔날레'에 주빈국으로 초청되는 등 파리와 문화교류를 이어왔다. 이천은 2018년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참가로 교류의 첫발을 뗐고, 2019년에는 메종&오브제에도 참가하며 도자 문화를 중심으로 프랑스 파리와 긴밀한 관계를 쌓고 있다.

사업성과

- 유럽 최대 공예·장인 박람회인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에 한국 지자체 중 최초로 단독 참가, 세계 공예예술 시장 내 인지도 확대
- 유럽 도예시장 핵심 네트워크 확보 및 이천 도자 구입·전시 제안으로 유럽 진출 기반 마련
- 유럽 문화예술계 유력 인사 다수 참가로 세계 공예예술 시장 내 지역 콘텐츠 인지도 확대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도자 제작 시연 및 전시: 총 25,000여 명 관람

후속사업

- 2019년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참가(2019.10.19.~29.)
- 2019년 영국 '런던 콜렉트' 참가(2019.2.26.)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도자 제작 시연(2019.10.26. 카루젤 드 루브르 홀)

도자기 제작시연 2탄 파리 루브르 이천도자기명장 세계를 빛다

분야	전시·워크숍·제작 시연(도자)
참여 지자체	경기 이천시
사업수행기관	이천나드리
교류지역	프랑스 파리
주요 교류기관	프랑스공예장인협회, 프랑스도예협회 등

추진일정

기간	2019년 10월 21일 - 10월 27일
프로그램	전시 및 제작 시연(4일), 워크숍(2회)
진행일정	<p>6월 · 파리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사무국과 참가 협의 · 박람회 부스 디자인 진행</p> <p>7~8월 · 도자 제작 시연 물품 1차 운송 · 사업 참가자 선발 완료 · 전시도록 기획</p> <p>9월 · 각종 계약 및 물품 2차 운송</p> <p>10월 · 국립 세브르도자공방 방문 10.21. · 주프랑스한국문화원 방문 10.22. ·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도자 제작 시연 및 전시 10.24.~27. 카루젤 드 루브르 홀 · 도자 제작 워크숍 10.21.~23. 파리내 도자공방</p>

2018년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에서 도자 제작 시연을 펼친 이천도자기명장회에 이어서, 경기 이천의 문화예술단체 이천나드리가 2019년 '문화유산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에 참가해 도자 제작 과정을 시연했다. 세계 10개 국가, 330개 팀이 참가한 제23회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에서 7명의 이천도자기명장, 그리고 명장들의 기술을 이어받은 청년 도예인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천의 도자기 명장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부스를 맡아 도자 제작 시연과 전시를 진행했다. 제작 시연에 사용한 기물은 프랑스도예협회가 지정한 파리 내 도자공방 2곳에 방문하여 미리 준비하였다. 관람객들에게 도자 제작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평소 명장들이 직접 사용하는 태토(도자 제작에 사용되는 흙)를 어렵사리 공수해 갔다. 전해보다 향상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현지 도자공방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 공방에서 도자 제작 기술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어 다방면으로 교류를 진행했다.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도자 제작 시연(2019.10.24. 카루젤 드 루브르 홀)



2018~2020년 우수사업

이천나드리는 이천 체험마을과 체험농가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문화체험단체다. '이천체험문화축제' 등 이천 내 1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천 지역문화,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2019년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에 참가한 이천도자기명장회의 긴밀한 협조와 노하우 공유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교류지역 소개

프랑스 파리는 2019년에도 세계 공예·디자인 허브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메종&오브제', '공예예술비엔날레',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등 세계적인 공예 및 디자인 행사가 전례에 못지않은 규모로 열려 성황리에 마쳤다. 2020년에도 이천은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참가를 추진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다음을 기약하였다.

사업성과

- 현지 문화예술 관계자 협력 및 참가를 통한 핵심 네트워크 확보
- 지역 콘텐츠 판매 및 전시를 통한 유럽진출 기반 마련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도자 제작 시연 및 전시: 총 15,000여 명 관람

후속사업

- 2021년 하반기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참가 예정
- 국제문화교류 사업 과정 및 성과 아카이빙 진행

2019
국제 업사이클 아트 디자인
문화교류 행사



2020
국제 업사이클
디자인 위크

1. 2년 연속 유럽 진출을 통한 한국 업사이클 콘텐츠의 인지도 및 위상 제고

- 독일 최대 디자인 박람회 '디자인스 오픈(Designers' Open)' 특별전시장 부스 운영을 통한 업사이클 인지도 제고
- 광명 주최 국제적 규모의 업사이클 작품 공모전 개최, 교류지역 확장으로 유럽 내 업사이클 진출 기반 마련

2. 해외 유관기관 주요 네트워크 확보로 사업 안정성 증대

- 현지 대규모 박람회, 전문 대학교,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 콘텐츠의 유럽진출 기반 구축
- 안정적인 인력 확보로 원활하고 신속한 비대면 교류사업 추진

3. 다양한 쌍방향 문화교류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마련으로 사업 지속가능성 확대

- 현지 디자이너,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한국 업사이클 이해도 증진 및 차별성 전파
- 현지 업사이클 주요 기업을 탐방하는 영상 제작으로 한국-유럽 업사이클 협업 증개 및 콘텐츠 파급력 확대



업사이클 워크숍(2019.10.25. 콩그레스홀레)

2018~2020년 우수사업

국제 업사이클 아트 디자인 문화교류 행사

분야	전시·워크숍·세미나(업사이클)
참여 지자체	경기 광명시
사업수행기관	광명문화재단
교류지역	독일 라이프치히
주요 교류기관	라이프치히 미술발전소, 디자이너스 오픈, 웨스트색슨 응용과학대학

추진일정

기간	2019년 10월 22일 - 11월 10일
프로그램	전시(17일), 워크숍(2회), 세미나(1회)
진행일정	<p>5월 · 유럽 측 담당자와 업무 및 프로그램 협의 · 업사이클 전시 작가와 작품섭외</p> <p>6월 · 국제 업사이클 공모전 진행</p> <p>7월 · 전시 및 워크숍 참여 작가 확정 · 공모전 수상작품 선정 완료</p> <p>8~9월 · 작품 및 행사 물품 해외 운송 · 연장 전시 장소 확정</p> <p>10~11월 · 디자이너스 오픈-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업무협약 체결 10.24. 콩그레스홀레 · 업사이클 전시 <코리안 업사이클 아트&디자인 프론티어> 및 워크숍 진행 10.25.~27. 콩그레스홀레 · 전시 연장 개최 10.28.~11.10. A&O 쿤스트홀레 · 현지 홍보물 및 프레스킷 배포</p>

연이은 만남, 깊이를 더하다

광명문화재단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와 협력하여 2019년 독일 라이프치히 디자인 포럼 '디자이너스 오픈'에 참여해 한국의 업사이클 작품을 선보였다. 독일 최대의 현대 디자인 포럼·무역 박람회인 디자이너스 오픈의 특별전시장을 무상 제공 받은 광명은 업사이클 전시 <코리안 업사이클 아트&디자인 프론티어>로 참여해, 버려진 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작품, 한복을 소재로 한 의상과 소품 등 한국 특유의 감성을 담은 업사이클 작품들을 전시했다. 이후 라이프치히 복합문화공간 A&O 쿤스트할레에서 전시를 연장 개최하여 기존 작품에 독일 웨스트색스 응용과학대학교 학생들과의 콜라베레이션 작품을 더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전시뿐만 아니라 한국 업사이클 작업 현황과 작가들의 작업과정 및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세미나, 리콜된 전자제품으로 미니캔버스를 제작하는 워크숍 등을 열어 소통과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전시 <코리안 업사이클 아트&디자인 프론티어>(2019.10.25. 콩그레스할레)



2018~2020년 우수사업

광명문화재단은 광명 산하 문화예술기관으로 공연, 전시, 생활문화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형도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환경문제 해결에도 힘쓰며 첨단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광명은 국내 최초 업사이클 특화공간인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설립해 업사이클 관련 전시와 작가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설립 이후 13회 이상의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130명에 달하는 작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교류지역 소개

독일 라이프치히는 자동차, 물류, 에너지·환경공학, 의료·바이오, 미디어·창조산업 등 핵심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혁신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전 세계 디자인을 한 곳에 모은 디자이너스 오픈을 2006년부터 개최하고, 유서 깊은 공예디자인 박람회 '그라시메세(GRASSIMESSE)'가 열리는 매력적인 문화도시다. 한국도 2018년 그라시메세에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다양한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인 적이 있는데, 당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도 함께 초청되어 국제 업사이클 전시에 참여했다. 이때 교류를 발판으로 2019년에 더욱더 확장된 형태로 문화교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사업성과

- 독일 디자인 박람회 디자이너스 오픈 연계, 한국 업사이클 디자인 위상 제고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독일 웨스트색스 응용과학대학교, 디자이너스 오픈과 업무협약(MOU) 각각 체결
- 국제적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 독일 '리사이클링 디자인 어워즈'와 연계, 업사이클 교류 기반 구축

업사이클 전시: 총 17,232명 관람

업사이클 워크숍: 총 64명 참여

업사이클 세미나: 총 80명 참여

후속사업

- 현지 반응이 좋았던 작품을 선별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국내 후속전시 개최 (2020.1.10.~3.15.)
- 이탈리아 국립 미술대학 ISIA와의 교류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제 업사이클 디자인 워크' 행사 추진(2020.11.5~11.)

연이은 만남, 깊이를 더하다



오프라인 업사이클 전시(2020.11.5. 라보라토리오 린파)

2018~2020년 우수사업

국제 업사이클 디자인 워크

분야	전시·워크숍·세미나(업사이클)
참여 지자체	경기 광명시
사업수행기관	광명문화재단
교류지역	이탈리아 로마
주요 교류기관	이탈리아 국립 미술대학교 ISIA, 업사이클 연구소 라보라토리오 린파

추진일정

기간	2020년 11월 5일 - 12월 31일
프로그램	오프라인 전시(7일), 온라인 전시(51일), 온라인 워크숍(3회), 온라인 세미나(1회), 기업탐방 영상 제작
진행일정	<p>7월 · 현지 협력기관과 비대면 교류 방안 협의</p> <p>8~9월 · 현지 전시개최 준비(장소 섭외, 작품 선정 등)</p> <p>10월 · 현지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 작품 운송 · 온라인 워크숍 영상 제작 · 온라인 플랫폼 개설</p> <p>11월 · 오프라인 업사이클 전시 11.5~11. 라보라토리오 린파, 인치퀘 오픈아트몬터 · 이탈리아 업사이클 기업탐방 영상 제작 11.6. · 온라인 업사이클 디자인 워크숍 11.8. · 온라인 업사이클 세미나 11.10. · 온라인 업사이클 전시 11.11.~12.31.</p>

연이은 만남, 깊이를 더하다

2019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업사이클 전시를 개최한 광명문화재단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제 업사이클 디자인 워크'를 진행했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이번에도 광명문화재단과 협력해 국내 우수한 업사이클 작품을 소개하고 업사이클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업사이클 문화교류를 이어갔다. 먼저 국내 업사이클 작가 24개 팀이 이탈리아 로마의 갤러리 인친퀘 오피 아트 몬티(Incinque Open Art Monti)와 로마 업사이클 연구소 라보라토리오 린파(Laboratorio Linfa)에서 업사이클 패션을 주제로 총 92점의 업사이클 작품을 전시했다. 코로나19로 제한적으로 열린 오프라인 전시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채널 '업사이클광명')에 공개해 비대면 교류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탈리아 디자인 전문가 및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상 워크숍을 열어 자투리 가죽, 청바지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양국 발제자가 참여한 세미나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업사이클 디자인 현황을 나누고, 이탈리아 업사이클 기업을 탐방하는 소개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보이는 등 다각도로 교류를 진행했다.

오프라인 업사이클 전시(2020.11.5. 인친퀘 오피 아트 몬티)



2018~2020년 우수사업

2019년 독일 라이프치히 '디자이너스 오피'에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와 함께 참여했던 광명문화재단은 광명 업사이클 콘텐츠로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20년에는 이탈리아 로마로 교류지역을 확장해 유럽 주요 국가들과 업사이클 분야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특히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2019년 당시 업사이클 전시를 주최한 디자이너스 오피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이어, 이탈리아 ISIA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앞으로 업사이클 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다.

교류지역 소개

패션과 디자인의 도시 이탈리아 로마는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을 통해 한국과 다양한 문화교류를 맺고 있다. 수준 높은 디자인 교육 인프라를 갖추어, 4개 주요 도시인 로마, 피렌체, 파엔차, 우르비노에 국립 미술대학교 ISIA(Istituto Superiore per le Industrie Artistiche)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로마의 ISIA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디자인 교육기관으로 업사이클 디자인 연구와 관련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사업성과

- 2년 연속 유럽 진출을 통한 업사이클 콘텐츠의 해외 파급력 제고
- 안정적인 현지 네트워크 확보로 원활하고 신속한 비대면 사업 진행
- 이탈리아 전문가 및 대학생 대상 워크숍 진행으로 한국 업사이클 이해 증진 및 현지 예술가와 교류 기반 구축

후속사업

-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과 이탈리아 ISIA 대학생 참여를 연계한 2021년 '국제 업사이클 공모전' 개최 예정
- 이탈리아 ISIA 대학, 한국 미술대학,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과 연계하는 비대면 워크숍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 개발 예정

연이은 만남, 깊이를 더하다

2019 NOMAD, 예술로 만나다



2020 서천, 몽골 문화예술창작교류 시즌2 “NOMAD, 예술로 만나다”

1. 지자체 자매도시 대상 양국 무형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교류 진행

- 충남 서천 무형문화재 및 몽골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 콘텐츠의 국제사업 브랜드화
- 양국 전문단체 간 전통음악, 무용, 미술 등 다방면에서 심도 깊은 문화예술 교류

2. 양국 경제·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기반 마련

- 양국 경제 및 교육 담당자들도 직접 참여하고 후원함으로써 지역 내 파급효과 확대
- 현지 전문예술기관과의 세부적인 업무협약 체결로 다방면 정기교류 방안 마련

3. 중장기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토대 구축을 위한 각종 연구·분석 추진

- 양국 창작교류 및 협업을 위한 심층연구와 학술분석을 통해 공통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제고



합동공연 <NOMAD, 예술로 만나다>(2019.8.1. 몽골국립극장)

2018~2020년 우수사업

NOMAD, 예술로 만나다

분야	전시·공연·워크숍(전통음악, 무용)
참여 지자체	충남 서천군
사업수행기관	서천군립예술단
교류지역	몽골 울란바토르
주요 교류기관	몽골국립예술단, 몽골예술가연합회, 몽골전문예술가협회

추진일정

기간	2019년 7월 28일 - 8월 5일
프로그램	전시(1회), 공연(2회), 워크숍(3회)
4월	· (1차 사전답사) 현지 협력기관과 사업 주요내용 협의
5~6월	· (2차 사전답사) 장소 점검, 현지 홍보계획 논의 등 · 몽골 측 한국 방문 및 양 예술기관 작·편곡
7월	· 무용·음악 워크숍 '예술 in 아카데미' 7.29. 몽골국립극장 · 합동공연 <NOMAD, 예술로 만나다> 7.30. 나이람달 국제캠프장 · 무용·음악 워크숍 '예술 in 아카데미' 7.31. 몽골국립극장
8월	· 합동공연 <NOMAD, 예술로 만나다> 8.1. 몽골국립극장 · 무용·음악 워크숍 '예술 in 아카데미' 8.2. 몽골국립극장 · 미술 교류전 <NOMAD, 예술로 그리다> 8.3. 몽골베스트아트 갤러리 · 서천군립예술단-몽골전문예술가협회 협약식 및 워크숍 8.4. 몽골 테를지국립공원 · 서천-몽골 문화교류 방안 및 후속사업 논의 8.5. 몽골 국립어린이예술창작센터

연이은 만남, 깊이를 더하다

충남 서천의 전통무용단 서천군립예술단이 전통문화를 주제로 몽골 울란바토르와 교류를 진행했다. 2017년부터 교류를 이어온 서천군립예술단과 몽골국립예술단은 양국 문화유산을 토대로 작곡과 안무, 연주를 주고받으며 서로 다른 문화를 한 작품에 녹여낸 합동공연 <NOMAD, 예술로 만나다>를 완성했다. 양 예술단이 몽골 나이람달 국제캠핑장, 울란바토르의 몽골국립극장에서 개최한 <NOMAD, 예술로 만나다>는 충남의 무형문화재 제1호 한산세모시짜기, 제21호 서천부채장의 공작부채와 몽골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마두금, 허미, 장가, 무용 등이 결합된 융복합 공연이다. '평화', '정의', '사랑', '환희', 총 4부로 구성된 공연으로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진정성 있게 풀어냈다. 한편, 몽골베스트아트 갤러리에서 열린 미술 교류전 <NOMAD, 예술로 그리다>에서는 몽골 화가들이 서천 무용수들을 스케치한 작품을 선보여 쌍방향 문화교류를 이어갔다. 또한, 양국 예술가들과 무용·음악 워크숍 '예술 in 아카데미'를 진행해 몽골과 한국의 유사한 악기 연주법을 교환하고 함께 안무와 음악을 만들며 앞으로 지속할 공동창작 기반을 마련했다.

합동공연 <NOMAD, 예술로 만나다>(2019.8.1. 몽골국립극장)



2018~2020년 우수사업

2017년 창단한 서천군립예술단은 국내 각지 전통공연, 다양한 해외 초청공연 등의 활동으로 서천 전통예술을 국내외로 알리는 예술단체다. 무용, 연희, 타악, 작곡 등 전통예술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창작 능력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몽골국립예술단을 서천에 초청하여 <NOMAD, 예술로 만나다> 공연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천군립예술단이 몽골을 찾아 상호교류를 이어갔다. 몽골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아랍에미리트와 교류 공연을 진행해왔고,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교류지역 소개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울란바토르의 바양골구는 충남 서천과 2016년 외국인 일자리 파견 사업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울란바토르 수흐바타르구도 서천과 업무협약(MOU)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양 도시는 경제교류를 시작으로 2017년 문화교류, 그리고 2018년 교육교류로 분야를 넓히고 있으며, 2019년 본격화된 서천군립예술단과의 문화교류를 계기로 문화, 경제, 교육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사업성과

-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국제교류 브랜드로 발굴, 전통음악·무용·미술 등 다방면 교류
- 문화교류를 통해 경제, 교육 등 분야로 교류 확장
- 서천군립무용단-몽골전문예술가협회, 몽골국립예술단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정기교류 방안 마련

합동공연 <NOMAD, 예술로 만나다>: 총 1,275명 관람
'예술 in 아카데미', <NOMAD, 예술로 그리다>: 예술인 97명 참여

후속사업

- 몽골국립예술단 답방 합동공연(2019.11.26.)
- 양국 문화교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및 공동창작 뮤직비디오 제작, 워크숍 진행 (2020.9.~2020.12.)
- 미술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한-몽 미술 경연대회' 개최 및 양 도시 교차 전시 (2020.9.1.~11.2.)



〈서천아리랑〉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2020.11.23. 서천 동백정)

2018~2020년 우수사업

서천, 몽골 문화예술창작교류 시즌2 “NOMAD, 예술로 만나다”

분야	전시·공연·워크숍(전통음악, 무용)
참여 지자체	충남 서천군
사업수행기관	서천군립예술단
교류지역	몽골 울란바토르
주요 교류기관	몽골국립예술단, 몽골예술가연합회, 몽골전문예술가협회

추진일정

기간	2020년 9월 1일 - 12월 12일
프로그램	전시(7일), 공연(1회), 공연 영상 온라인 상연, 세미나(4회), 워크숍(2회), 미술 경연대회
진행일정	<p>7월 · 비대면 사업전환 및 작·편곡 진행</p> <p>8월 · 양국 공동관리 온라인 플랫폼 개설</p> <p>9월 · 한국-몽골 미술 경연대회 9.1.~11.2. 몽골국립미술대학교 · 1차 예술인 역량강화 세미나 9.28.</p> <p>10월 · 현지 홍보 착수 · 다큐멘터리 및 공연영상 촬영 준비 · 양국 문화예술 교류 기념 조형물 제작 착수</p> <p>11월 · 전시 〈서천풍경전〉 11.5.~6. 몽골 생케르야기아트갤러리 · 2·3차 예술인 역량강화 세미나 11.7.~12. · 공연창작 워크숍 및 다큐멘터리 촬영 11.23.~24. · 국내 합동공연 〈서천아리랑〉 11.25. 서천문예의전당 · 전시도록 및 홍보물 제작, 보도자료 배포</p> <p>12월 · 〈서천아리랑〉 영상 온라인 플랫폼 업로드 · 전시 〈몽골풍경전〉 및 제막식 12.8.~12. 서천문예의전당, 온라인 스트리밍 병행 · 4차 예술인 역량강화 세미나 12.12.</p>

연이은 만남, 깊이를 더하다

2019년 몽골 울란바토르와 전통문화 교류를 펼친 서천군립예술단이 2020년에도 교류를 이어갔다. 양국 예술단이 공동창작한 <NOMAD, 예술로 만나다>를 발전시켜 선보이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공연 영상 제작으로 교류 방식을 바꾸었다. 이번에는 양국 예술단에 대한민국 해군군악대까지 힘을 보태 안무, 작곡 등을 주고 받으며 공연 <서천아리랑>을 제작했다. 서천군립예술단, 몽골국립예술단, 대한민국 해군군악대는 서천문예의전당에서 합동공연을 펼치고 이를 영상으로 담아 <서천아리랑> 뮤직비디오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채널 '서천군립예술단 전통무용단')에 공개했다. 2019년에 진행한 교류전 <NOMAD, 예술로 그리다>를 확장하여 한국, 몽골의 전시 공간에서 각각 <몽골풍경전>, <서천풍경전>을 개최하고, 전시에 앞서 몽골국립미술대학교에서 진행한 미술 경연대회 수상작과 몽골 작가들이 그려낸 서천의 모습을 선보였다. 또한, 몽골의 전통악기 마두금과 서천의 공작부채를 재해석한 조형물을 양국 전시장에 설치해 몽골과 서천의 우정을 기념했다. 공연과 전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문화교류를 위한 세미나, 공동창작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해 지난 교류의 여정을 기록하였다.

<서천아리랑>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2020.11.23. 서천 동백정)



2018~2020년 우수사업

전통무용단 서천군립예술단은 다년간 몽골과 서천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공연작품을 창작해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몽골국립예술단, 몽골전문예술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근 호주, 일본과도 문화교류를 진행해 국제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교류지역 소개

몽골 울란바토르는 2016년 외국인 일자리 파견 사업으로 서천과 교류를 시작했고, 경제 분야에서 문화, 교육 분야로 교류를 점차 확장하고 있는 도시다. 2019년 공연 <NOMAD, 예술로 만나다>로 서천과 본격적인 문화교류를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공연뿐만 아니라 확장된 미술 교류전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에는 울란바토르가 서천에 홍보와 교류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매해 깊은 우정을 쌓고 있다.

사업성과

- 양국 전시 공간에서 상호교류전 각각 실시, 새로운 비대면 교류 콘텐츠 개발
- 대한민국 해군군악대의 공동창작 참여로 민·관·군 문화예술 협력체제 구축
- <서천아리랑> 공연 영상 및 뮤직비디오 제작으로 온라인 콘텐츠 기획역량 강화

<NOMAD, 예술로 그리다>: 총 130여 명 관람(몽골 100여 명, 서천 30여 명)

예술인 역량강화 세미나 및 공동창작 워크숍: 예술인 90여 명 참여

<서천아리랑> 온라인 상연: 약 7,000회 조회

후속사업

- 지속적인 교류 기반 구축을 위해 현지 협력기관과 추가 업무협약(MOU) 체결
- 서천-몽골 문화교류 과정과 서천의 문화 콘텐츠 발전 방안을 연구하여 공동논문 발표 예정
- 양 도시 예술단 상호 방문 및 공연, 미술 레지던시 운영 등 교류 프로그램 추진

경기 김포

2020 한강 프리존, 강을 잃어버린 도시 展



2018~2020년 우수사업

사업개요

분야	전시·워크숍(현대미술)
참여 지자체	경기 김포시
사업수행기관	김포문화재단
교류지역	미국 글렌데일
주요 교류기관	리플렉트 스페이스

추진일정

기간	2020년 5월 26일 - 2021년 4월 16일
프로그램	온라인 전시(117일), 거리배너 전시(29일), 온라인 워크숍(3회), 온라인 지자체장 간담회(1회)
진행일정	<p>5~6월 · 양국 작가 사전 온라인 워크숍 3회 진행 및 양 도시 공통 담론, 교류 방향성 등 논의 · 온라인 플랫폼 개설</p> <p>7~9월 · 김포아트빌리지 전시 <한강, 프리존, 강을 잃어버린 도시> 작품 설명, 작가 인터뷰 등 온라인 업로드</p> <p>10~11월 · 홍보물 제작 및 홍보계획 수립 · 현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논의</p> <p>12월 · 현지 가상 전시관 구축 및 온라인 전시 '20.12.21.~'21.4.16.</p> <p>21년 · 양 도시 공통 이슈 및 작품 설명 안내도서 제작 1~2월 · 김포문화재단 가상 전시관 구축 및 온라인 전시 '21.2.16.~'4.16. · 글렌데일 중앙로 거리배너 전시 '21.2.19~'3.19. · 향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 도시 시장 간담회 '21.2.19.</p>

연이은 만남, 깊이를 더하다

평화문화 도시 김포와 인권의 도시 글렌데일이 교류전 <한강 프리존, 강을 잃어버린 도시>를 개최하였다. 전시의 소재인 한강 프리존은 남북한을 구분하고 있는 한강 하구로, 1953년 정전협정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한국 작가들은 이러한 한강 프리존을 주제로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고, 한강 하구의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강을 잃어버린” 김포의 모습을 회화,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등의 매체로 새롭게 해석하였다. 코로나19로 한국 작가만 전시에 참여하였으나, 사전 온라인 워크숍에서 국경, 경계, 평화와 인권이라는 공통 사안을 양국 작가가 함께 논의하고 이를 예술로 풀어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 아트센터에 설치한 전시 작품과 작가 인터뷰를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채널 ‘김포문화재단’)에 공유하여 비대면 전시를 진행했다. 전시 작품을 3D 그래픽으로 구현한 VR 전시도 글렌데일 시립 미술공간 ‘리플렉트 스페이스’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보여 양국에서 동시에 온라인 전시를 개최하였다. 현지 오프라인 전시를 열진 못했지만, 전시 주제를 담은 판화 작품을 배너로 제작하고 글렌데일 중앙로에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에 다가갔다.

김포 시암리 초소를 묘사한 홍선웅 작가의 목판화



2018~2020년 우수사업

김포문화재단은 지역 예술단체 지원, 국제문화교류 사업 등 김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다방면 활동을 펼치는 기관이다. 문화다양성 사업, 김포평화포럼, 러시아 사할린 한인 동포를 위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내외 문화교류 사업을 도맡으며 남북한 교류 활성화, 평화와 인권의 확산이라는 김포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미국 글렌데일은 2010년 김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다. 아르메니아계 시민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을 바탕으로 연대를 실천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찍부터 공감을 표하며 한국 이외 지역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기도 했다. 김포문화재단과 교류한 리플렉트 스페이스는 2017년 글렌데일에 개관한 시립 미술공간으로,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홀로코스트, ‘위안부’라는 희생과 아픔의 역사를 예술의 관점에서 다뤘다.

사업성과

- 자매도시 간 국경, 평화, 인권이라는 공통 관심소재를 심화하여 교류 콘텐츠로 발전
- 김포의 한강 하구, DMZ 등에 대한 담론 형성으로 지속적인 문화교류 계기 마련

후속사업

- 양국 작가-기획자 간 온라인 워크숍 추진 예정(2021년)
- 작가 레지던시 진행으로 인적 예술교류 추진 예정(2022년)
- 양 도시 간 교류 내용 및 단계별 프로젝트 규모 확대 논의

언어은 만남, 깊이를 더하다

2020 평화의 시마을 해남 (Shanti Poemtopia Haenam)



분야	공연·워크숍(해남굿), 시 낭송(시문학)
참여 지자체	전남 해남군
사업수행기관	시화풍정 '담소'
교류지역	인도 산티니케탄
주요 교류기관	산티니케탄 뿌리바 예술단

추진일정

기간	2020년 8월 1일 - 12월 5일
프로그램	영상 제작 및 온·오프라인 상영, 워크숍(7회), 실시간 상영회(1회)
진행일정	<p>7~8월 · 양 지역 시문화적 연관성 논의 및 작가·작품 선정</p> <p>9월 · 해남 시 낭송 녹음 및 영상 제작(10편) · '해남굿 알기' 워크숍 3회 9.21.~10.15.</p> <p>10~11월 · 현지 축 문화예술 콘텐츠 영상 제작(9편) · 양 도시 온라인 교류 플랫폼 개설 및 제작물 업로드 · 공연 <영혼의 안식과 삶에 평화를 안기는 소리와 몸짓의 발라드 댄스> 영상 제작·편집 및 업로드</p> <p>12월 · 양 도시 교류 종합영상 실시간 상영회 12.5.</p>

전남 해남의 공연 단체 시화풍정 '담소'가 시문학을 중심으로 인도 산티니케탄과 문화교류를 진행했다. 죽은 이의 영혼을 씻어주는 무속 의례 해남굿과 인도 제의의 '치유'를 공통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와 공연이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채널 '평화의 시마을 해남')에 공개되었다. 시마을 해남과 인도의 교육마을 산티니케탄을 소개한 영상뿐만 아니라 해남굿 워크숍 영상, 양국 시노래·시문학 낭송 영상 등을 잇따라 공유하였다. 해남굿 공연 <영혼의 안식과 삶에 평화를 안기는 소리와 몸짓의 발라드 댄스>는 코로나19로 본래 계획처럼 산티니케탄에서 개최되지는 못했으나, 시화풍정 '담소'와 해남 예술인들이 일부 관객을 초청해 약 7시간에 걸친 공연으로 선보인 후 영상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전반적인 비대면 교류 과정과 내용을 담은 영상 상영회가 열려 양 지역 참가자와 관계자 약 200명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하였다. 이들은 양국 시문학적 풍토에 공감을 표하며 문화예술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펼치고 차년도 교류를 다짐하였다.

공연 <영혼의 안식과 삶에 평화를 안기는 소리와 몸짓의 발라드 댄스>(2020.10.18. 해남 에루화현)



2018~2020년 우수사업

시화풍정 '담소'는 해남의 대표적인 공연인 <길을 가다>, <땅끝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동서양 장르를 아우르는 크로스오버 공연을 기획하는 등 해남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는 예술 단체이다. 고산 윤선도가 머물렀던 시인의 마을 해남을 기반으로 시문학, 우수영 들소리, 사물놀이 등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을 국내에서 다양하게 선보일 뿐만 아니라, 중국, 태국, 인도와 문화예술 교류를 진행하며 해남의 문화예술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산티니케탄은 북인도 지역 문화예술의 터전으로 알려진 교육마을이며 인도 웨스트벵갈주의 수도 콜카타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곳에 있다. 1913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인도 시인 타고르의 부친이 설립한 '평화의 마을'로, 1901년 타고르가 부친의 땅에 학교를 짓고 자연과 함께하는 독특한 교육을 시작해 오늘날 인도의 교육마을로 자리잡은 곳이다. 한편, 교류에 함께한 산티니케탄 뿌리바 예술단은 인도 전통음악, 미술, 타고르의 시 등을 교육하는 전문예술인 단체다.

사업성과

- 해남의 시노래 및 시문학, 해남굿 등 풍부한 콘텐츠로 상호교류 활성화
- 해남의 전통 민속예술인 해남굿의 원형 복원과 현대적인 재해석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행
- 양 도시 공통 콘텐츠와 지역 정서교류를 토대로 구체적인 향후 사업 방향성 설정

후속사업

- 우수영 들소리, 풍물굿, 강강술래 등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발달한 해남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국제 콘텐츠화
- 현지 예술기관 협력, 양 도시의 시문학·노래·무용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을 기반으로 한 '시노래극' 공동제작 예정(2021년)

**2018~2020년
우수사업
담당자 인터뷰**

2018, 2019년 우수사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18, 2019년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우수사업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수사업에 선정된 4개 지역은 2년 연속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성과를 이룩했다. 국제문화교류 현장을 책임진 담당자들은 교류지역을 선정한 배경, 지역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를 발견하고 기획한 과정, 문화적 차이를 극복한 방법 등을 자세히 나누며 사업의 가치와 미래를 논의하였다.

참여 연도	지역	담당자
2018~2019년	강원 영월	이재정(영월미술협회 기획실장)
2018~2019년	경기 이천	정수희(이천시청 문화예술과 주무관)
2019~2020년	경기 광명	강진숙(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센터장)
2019~2020년	충남 서천	김대기(서천군립예술단 대표)

인터뷰 일시

2020.11.19. 15:00~18:00

Q. 안녕하세요. 2018, 2019년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우수사업 담당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주셨는데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정(영월미술협회 기획실장) 안녕하세요. 영월미술협회 기획실장 이재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과 이듬해에 진행된 영월과 중국 웨이하이의 미술 교류를 총괄 기획하고 운영하였고요. 영월문화재단, 영월군청과 같은 협력기관 담당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맡았습니다.

김대기(서천군립예술단 대표) 서천군립예술단 대표 김대기입니다. 서천과 몽골 울란바토르의 전통문화 교류를 수행한 서천군립예술단에서 전체적인 기획과 운영을 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력단체 섭외, 진행, 사업 총괄을 맡았고, 공연을 제작한 예술감독과도 협의하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수희(이천시청 문화예술과 주무관) 안녕하세요. 이천시청 문화예술과 정수희입니다. 이천 도자문화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 참가를 2년 연속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강진숙(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센터장) 저는 광명에서 운영하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2019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디자이너스 오픈' 업사이클 전시, 2020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추진한 '국제 업사이클 디자인 워크'의 기획과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Q. 우수사업 모두 2년 연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지만, 첫 시작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 교류지역이나 기관을 선정한 배경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이재정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은 중국 웨이하이와 미술을 중심으로 교류했습니다. 현재 미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는 중국이고, 아시아 미술 시장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따라 홍콩, 상하이, 광저우 같은 지역을 교류대상으로 고려하던 중, 중국 웨이하이미술협회와 연이 닿았습니다. 웨이하이미술협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사전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었고, 교류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등 여건이 맞았습니다.

정수희 저는 프랑스에서 14년 정도 생활하면서 한국문화를 알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천시청에 도자기 전문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우리나라의 고유한 도자 기술과 작품을 해외에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업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김대기 서천은 몽골과 2015년부터 진행한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근래 교류 범위를 문화 분야로 확장했습니다. 서천군립예술단이 경제교류 행사로 몽골에 동행했을 때 몽골국립예술단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문화예술 교류를 진행해보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후 연락을 이어가다가 2015년 몽골국립예술단 창단 65주년 기념식에 초청받고 몽골국립예술단과 협약을 맺게 되었어요. 협약을 계기로 2016년부터 서천과 몽골에서 상호교류 공연을 진행했구요. 점차 몽골의 다른 예술단체나 기관과 협약을 맺고 문화교류를 확장하였습니다.

강진숙 다른 분들과 달리 저희는 독일에서 역으로 교류 요청이 왔던 경우예요. 다양한 홍보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독일의 큐레이터 한 분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발견하고 2018년에 본인이 기획하는 업사이클 전시에 초청했습니다. 예산이나 기획이 없어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 지원하겠다고 나서서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업사이클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교류지역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교류 주제와 콘텐츠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적합한 콘텐츠를 발굴하느라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재정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중·일 작가가 동양화를 주제로 영월에서 미술 교류전 <동방채목전>을 개최하였는데요. 성공적으로 이뤄졌더라고요. 저희는 이를 국제문화교류 브랜드로 발전시켰고, 결과적으로 미술 교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 정기적인 작가 레지던시 교환까지 이어졌습니다.

김대기 저희는 양국 예술단의 공통된 활동 분야에 주목했어요. 서천군립예술단은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몽골국립예술단도 마찬가지였죠.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 등이 콘텐츠 후보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다 서천에 있는 충청남도무형문화재에 주목했어요.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된 '서천부채장'의 작품 중에서 공작부채가 흥미롭더라고요. 부채 문양에 공작의 머리가 들어있거든요. 공작은 몽골에서 행운, 부귀를 상징하기에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주요 콘텐츠를 공작부채로 하되 음악을 공동으로 작곡해보자고 했죠.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습니다.

강진숙 도자나 동방채목, 공작부채 등과 달리 업사이클은 어느 지역에 고유한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나 광명의 한 명소로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자투리 자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신선한 콘텐츠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게다가 업사이클은 재활용이라는 세계적인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정수희 업사이클이 오늘날 주목받기 시작한 분야라면 이천 도자는 예로부터 유명했고 한국의 도예인 상당수가 이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천 도자를 한식이나 '케이팝', '케이뷰티'처럼 한류 문화사업으로 이끌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완성된 도자를 전시할 수도 있었지만, 도자 제작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천에서 직접 선정한 이천도자기명장들이 물레, 흙, 도구 등을 그대로 가져가 도자 제작 시연을 선보이는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Q. 다양한 지역과 교류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마다 특징이 다를 텐데요. 우리와는 다른 사고방식이나 문화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김대기 몽골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칭기즈 칸이라는 문화적 아이코네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이런 부분을 특히 조심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더라도 몽골에서 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요청하였고요. 경제적 규모의 차이보다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의기투합하였습니다.

이재정 초반에 웨이하이와 협약을 맺기 위해 방문했을 때 중국 웨이하이 담당자가 영월 인구 수를 묻더군요. 그만큼 격과 급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격과 급에 맞는 명분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 조율 과정이 복잡했어요.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작가 레지던시 교환이나 아트페어 공동 참가 등이 좋은 대안으로 떠올라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수희 프랑스도 문화강국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처음에는 도자 제작 시연이 낯설다는 반응이었고, 나이가 지긋한 명장 7명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니 시큰둥했어요. 도자는 예스러운 느낌이 강하고, 그들이 물레 같은 걸 접할 기회도 없었으니까요. 이천도자기명장을 소개하는 자료를 공유하고 기획과 콘텐츠를 상세히 설명했더니 그때부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진숙 독일 사람들은 예술이나 문화를 대할 때 진지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한국의 업사이클 작품은 어린이도 즐길 수 있을 만큼 화려하고 재치있어요. 오히려 이런 차이를 부각해서 신선한 인상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뢰도 중요한 부분이었죠. 일 처리 속도나 예산의 집행 방식이 한국과는 전혀 달라서 어느 정도 발을 맞춰가야 했어요.

Q. 해외 홍보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홍보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김대기 몽골은 문화예술 관계자들끼리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몽골국립예술단은 국립기관인지라 문화, 언론계와 연결되어 있어 홍보하기 편했어요. 사업의 파급력을 알리는 데 방송이 가장 좋은데, 현지 토크쇼에서 저희 공연을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고 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죠.

이재정 중국과 우리나라는 홍보 플랫폼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쓰지 않으니깐요. 주로 위챗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웨이하이미술협회에 홍보팀이 있었고, 미리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니 위챗에 홍보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줬죠. 웨이하이 자체 홍보팀 협력으로 현지 주요 뉴스에서 저희 소식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강진숙 디자이너스 오픈은 규모가 큰 편이라 노출이 용이했고, 협력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언론 및 온라인 홍보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니 현지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힘들었을 텐데요. 디자이너스 오픈의 자체 홍보 조직을 통해 도움을 받았고 그 결과 독일의 유명한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도 하였습니다.

정수희 저희는 온라인 홍보는 미흡했지만, 전시를 관람한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난 듯해요. 행사 마지막 날 전시를 보기 위해 지방에서 부랴부랴 올라온 사람도 있었고. 박람회도 유명한 루브르박물관에서 열렸고 행사의 역사와 전통이 깊다 보니 박물관, 문화재나 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 컬렉터들이 많이 왔어요.

Q. 2년 연속 국제문화교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했을 텐데요. 교류 규모, 방식, 분야 등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정 우선 영월은 미술 교류전에서 작가 레지던시 교환으로 교류 형태가 확장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상현실(VR) 전시, 아트페어 '작가미술장터' 참여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VR 자료를 웨이하이미술협회와

광저우미술협회에 보내주면 중국에서 위챗 페이지로 홍보를 해주었고요. 작가미술장터에 참여한 중국 작가는 한국에서 작품들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김대기 서천은 경제에서 시작해서 문화, 교육까지 교류분야가 확장된 경우입니다. 보령과 태안 같은 지역에서도 몽골 계절 일자리 파견을 문의하였고요. 사업을 계기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지역문화예술협동조합 등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서천 문화의 중심이 되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하였고요. 한국과 몽골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교류도 추진되어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정수희 저희는 행사가 끝나고 현지 문화예술기관들로부터 다양한 문의나 제안을 받았어요. 2019년 2월에는 영국의 아트페어 '런던 컬렉트'에 초청받았고요. 올해 코로나19로 무산되긴 했지만, 유럽 룩셈부르크 왕실 박람회에 이천이 공식 초청받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의 피츠윌리엄박물관이 서광수 명장님의 달항아리를 소장하게 되었어요. 전반적으로 이천 도자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수요가 생겨났습니다.

강진숙 첫해 교류가 잘 진행되어 다음해까지 이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업사이클 작품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이탈리아로 무대를 넓혀 업사이클 전시를 진행했고, 민간기관과 더불어 대학교, 연구소 등으로 교류대상이 확장되었어요. 국내 작가들도 업사이클 전시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나 업사이클 분야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갔어요.

Q. 지속적인 교류의 파급효과를 직접 확인하신 만큼, 다년간 국제문화교류 지원의 필요성을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이재정 네, 맞습니다. 2년 지원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년간 지원하고, 그 후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제교류사업은 규모가 점점 확장되잖아요. 교류하는 분야가 늘어나다 보면, 각 분야가 성장하기 위한 시간이 3년 정도는 필요합니다. 보통 교류 확장이 적어도 2년, 3년 차는 되어야 이뤄지다 보니, 신규로 확장된 분야가 자리를 잡으려면 총 5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에 따른 자원 확장도 자연스럽게 뒷받침돼야 하고요.

김대기 저도 국제교류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원 문제 같아요.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지자체에 설득해야 하고, 나아가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요. 항상 국제교류사업의 명분을 요구하더라도요. 이렇듯 민간단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다년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수희 이전에도 일회성 지원으로는 부족하고 최소 두 번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도 적고 못 해도 서너 번은 이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지자체장 방문이나 자매도시 협약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려면 오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데, 이러한 행정적인 틀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 이상 교류사업이 진행되어 지자체장이 교류지역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쌓이면 사업이 더 탄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숙 예산 지원이 지속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명분이 있어야 하고, 큰 의의가 있어야 하죠. 명분과 의의를 탄탄히 다지려면 3~4년 정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계실 텐데, 코로나19가 문화교류에 미친 영향과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들어보며 오늘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정 코로나19로 전시 관람이 어려워지다 보니,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시 정보를 이전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현상에 발맞춰 작가미술장터를 준비할 때 VR 사전 전시를 열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문의할 수 있게 도왔고, 덕분에 후속 전시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반인들의 진입장벽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선된 셈이죠.

정수희 최근 비대면, 온라인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도자 전시나 제작 시연은 무엇보다 현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된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었습니다. 대응책으로 도자 문화와 산업을 결합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이천 도자 콘텐츠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선보이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천의 문화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천 도예가들의 작업 인생을 아카이빙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김대기 서천군립예술단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물밀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면과 비대면 교류를 병행하며 몽골국립예술단, 몽골전문예술가협회 등 몽골 예술가들과 공동창작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물을 공연 영상으로 제작해 몽골에 공유하고 온라인 플랫폼에도 공개했구요. 서천을 주제로 하는 미술 경연대회를 몽골에서 개최하고 수상작을 한국과 몽골에서 각각 전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진숙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이전처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대신 관심 있는 소수에 초점을 맞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분야 전문가나 전공자가 참여하는 화상 워크숍을 진행하는 식이죠. 덕분에 참가자 한 명 한 명이 전보다 밀도 있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오프라인 전시의 현장감을 살리기 어려운 한계도 있는데요. 앞으로 비대면 전시도 현장감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할 예정입니다.

2020년 우수사업

2020년도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우수사업은 전남 해남(시화풍정 '담소'), 경기 김포(김포문화재단)로 선정되었다. 두 지역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갖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교류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팬데믹 시대에 국제문화교류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화상 회의를 개최해 2020년 우수사업 담당자들이 비대면 교류의 어려움을 극복한 여정과 앞으로의 교류 계획을 들어보았다.

참여 연도	지역	담당자
2020년	경기 김포	박정현(김포문화재단 아트센터 팀장)
2020년	전남 해남	박양희(시화풍정 '담소' 총괄 기획자)
2020년	전남 해남	한유진(시화풍정 '담소' 기획자)

인터뷰 일시

2021.1.20. 15:00~17:00

Q. 안녕하세요. 2020년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우수사업에 선정된 지역의 담당자분들을 한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정현(김포문화재단 아트센터 팀장) 김포문화재단 아트센터 팀장 박정현입니다. 2020년 미국 글렌데일과 전시를 중심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진행했고 사업 추진과 운영 등을 총괄했습니다.

박양희(시화풍정 '담소' 총괄 기획자) 저는 음악가, 화가 등 해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치는 문화단체 시화풍정 '담소'의 박양희입니다. 2020년에는 인도 산티니케탄과 시문학을 주제로 문화교류를 진행했습니다.

한유진(시화풍정 '담소' 기획자) 안녕하세요, 시화풍정 '담소'에서 기획을 담당한 한유진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10년 정도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화풍정 '담소'와 산티니케탄의 교류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Q. 본격적으로 교류사업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해남은 시문학, 김포는 '국경', '경계', '평화' 등을 주제로 교류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교류지역을 선정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박정현 2019년 글렌데일 시립 미술공간인 '리플렉트 스페이스'의 큐레이터 아라 오샤간(Ara Oshagan)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미팅을 진행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김포는 한강이 끝나는 지점에 있으며 강 건너로 북한을 바라보는 지역입니다. 철책에 둘러싸인 한강 하구, 강 너머 북한 풍경을 아라 오샤간 큐레이터와 함께 보면서 깊은 얘기를 나눴고 금세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프로젝트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렌데일은 2010년에 김포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했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 미국 내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곳이라 교류지역으로 적합했어요.

박양희 김남주, 고정희, 김준태, 황지우 시인 등이 연고가 있는 해남은 독특한 시적 풍토를 갖추어 '시인의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남과 교류한 산티니케탄도 시인 타고르가 만든 교육도시로 문화예술의 뿌리가 깊은 곳이죠. 유사한 문화적 풍토를 바탕으로 시화풍정 '담소'와 산티니케탄 '쁘리바(Poribar)' 예술단이 만나 해남의 시노래, 타고르의 시노래 등 시문학 콘텐츠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산티니케탄에서 10년 정도 생활하며 뿌리바 예술단과 음악으로 교류한 적이 있고 인도에서 뿌리바 예술단원으로 활동한 지인도 있었기에 인연을 이어가기 수월했죠.

한유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산티니케탄은 전라남도과 2019년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인도 웨스트벵갈주에 속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교류 기반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Q. 말씀해주신 지역 고유 콘텐츠로 어떤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는지 소개해주세요.

박양희 원래 산티니케탄에 방문해서 시문학 콘서트, 민요 워크숍을 열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를 주로 제작했어요. 시화풍정 ‘담소’가 해남의 시 노래를 선보이면 산티니케탄에서 인도 시 노래로 화답하는 콘텐츠가 대표적이죠. 또한, 해남의 전통 의식 ‘해남굿’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문화공간 ‘에루화현’에서 실제 공연도 펼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장을 마련했어요.

한유진 비교적 낮은 영역인 시문학으로 비대면 교류를 진행하다 보니 영상 콘텐츠가 가장 적합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를 다른 문화권에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다양한 시문학 콘텐츠 영상을 14편 정도 제작했고 시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섬세하게 번역해 현지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영상 콘텐츠에 해남의 시적 풍토, 자연환경, 풍속을 담고 인도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는 해남 미항사를 방문해 스님께 시 낭송을 부탁드리기도 했어요.

박정현 한강 하구, ‘국경’, ‘경계’ 등은 이번 교류뿐만 아니라 김포문화재단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서 늘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글렌데일 작가들과 이러한 주제로 3차례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해 전시의 구체적인 방향, 후속교류 방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원래 양국 작가가 워크숍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을 전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직접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전시로 전환하였습니다. 김포에서는 한강 하구를 가까이서 탐구하고 설명한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판화 작품 등으로 온라인 전시를 개최해 김포문화재단의 공간과 전시 주제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글렌데일에서는 김포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현지 미술공간 ‘리플렉트 스페이스’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상 전시를 열었습니다.

Q. 코로나19로 국제문화교류 사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면 전환되어 교류 진행이 쉽지 않은 텐데요. 처음 비대면으로 교류를 진행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박정현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자꾸 엇갈려 교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대면 교류로 콘텐츠와 자료가 많이 쌓인 덕에 후속교류 기반이 마련된 측면도 있어요. 만일 대면으로 진행했다면 글렌데일에 방문해 프로젝트 하나쯤 선보이고 끝났겠지만, 비대면 교류는 단계를 하나, 하나 천천히 밟아가다 보니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한유진 저희도 비대면 교류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했어요. 교류지역에서 일회성 공연을 보여준다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해남의 시문학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우리 문화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할 수 있었고, 정해진 기한이 따로 없으니까 사람들도 시간을 두고 영상을 꼼꼼히 시청하며 해남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물론 교류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도 행정기관과 협력하기 어려웠고 산티니케탄은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힘들었죠.

박양희 분명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산티니케탄에서 12월 한 달을 ‘해남의 달’로 지정하고 콘텐츠 상영회 및 해남 먹거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극히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겠죠. 비대면 교류로 전환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만남’의 제한이었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교감, 직접 마주보며 나누는 감동이 문화교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비대면 교류에서는 한계가 있었죠.

Q. 비대면 교류를 추진하면서 특히 어떤 점을 유의하셨나요?

한유진 우선 현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비대면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해요. 교류는 곧 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접점을 찾고 상호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의미 있는 콘텐츠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박양희 중요한 지적이예요. 지역 우수문화 콘텐츠를 해외에 소개하는 사업인지만 자칫 일방적인 전달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상대가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했고요. 직접 만나서 교류하며 형성하는 공감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최대한 양국의 공통점에 착안해 협업하는 방안을 고민했어요.

Q. 해남은 이번 교류에 이어서 음악극 제작, 시문학 콘서트를, 김포는 양국 작가 온라인 워크숍,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후속사업 여부나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박정현 이번 교류에서 김포의 이야기를 글렌데일에 소개했다면 다음에는 글렌데일을 김포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2021년 4월에 글렌데일 ‘아르메니아 주간’을 맞아 아르메니아 대학살 사건과 인권 문제를 다루는 대규모 전시 프로그램이 개최되는데요. 이때 한국 작가들이 글렌데일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글렌데일을 소개하는 전시를 김포에서 개최하고 작가 레지던시도 운영하려고 해요.

박양희 저희는 2020년 교류로 서로의 풍토를 이해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산티니케탄과

공동창작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첫째는 음악극인데요. 인도영화를 보면 항상 음악이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타고르의 무용극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착안해서 해남의 시 노래를 춤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극적인 요소도 갖춘 음악극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7월에 산티니케탄 뿌리바 예술단원을 초청해서 무대, 음악 등을 함께 제작하고 인도 문화를 작품에 녹여내려고 해요. 또한, 불교가 인도에서 신라로 전래했다는 해남 전통설화를 재현해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작품도 제작 논의 중입니다.

Q. 국제문화교류 현장에서 느낀 교류사업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박정현 글렌데일 외에 러시아 사할린 등 다른 지역과도 문화교류를 진행해봤는데, 대체로 일회성 교류로 끝난 적이 많습니다. 한 번 해외에 다녀오면 당분간 안 가도 된다는 인식이 있죠.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교류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한유진 지자체나 수행단체에서 국제교류 전문인력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야만 말씀해주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순환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담당자가 갑자기 바뀔 때도 있고요. 이러한 지자체 조직 체계나 인프라 문제가 개선되면 좋겠어요.

Q.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전문인력 보충, 인프라 개선 등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박정현 중앙 정부에서 우수한 교류 콘텐츠와 장기 계획이 있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정부가 교류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좋겠죠. 또한, 지원 사업을 다른 지역에 홍보해서 다양한 지역 콘텐츠와 이야기를 세계에 선보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류사업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와 수준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양희 시화풍정 '담소'는 예술가들로 구성된 단체라 실무를 담당할 전문 기획자가 부족해서 콘텐츠 제작과 기획을 동시에 떠맡았어요. 제작 이외 영역을 도맡아줄 기획자를 연결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적절한 분업이 이뤄질 것입니다.

한유진 저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 기획자로도 일한 적이 있는데요. 산업 분야에는 연속사업 정책이 있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로 성과를 분배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원해줘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도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연속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어떨지 싶어요. 그러면 수행단체도 교류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Q. 2020년 처음 도입한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전문가 자문이 교류사업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박양희 자문위원분들의 전문 분야가 저희 사업과 잘 맞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특히 홍유정 자문위원님은 해남까지 와서 자문을 제공하셨고 실제 공연 날에도 직접 와주셨어요. 서로 가깝게 지내며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저희와 진흥원의 소통도 도와주셨고요.

한유진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자문단이 저희 사업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좋았습니다.

박정현 자문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저희 사업을 돌아보게 되어 큰 도움과 자극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방과 수도권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 현실에 적합한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2020년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마친 소감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현 우선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시화풍정 '담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020년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참여해 뜻깊은 성과를 얻었는데요. 앞으로 더욱 발전된 교류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 함께 난관을 헤쳐나가며 한 해를 무사히 보낸 것 같아요.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되돌아보고 해남 지역을 새로운 문화권에 소개하기 위해 고민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 없었다면 민간 차원에서는 이 정도 성과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해남군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유진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비대면 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류사업으로 지역 우수문화가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문화를 많은 사람이 접하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PART 2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은 교류사업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초지자체 또는 민간 문화예술 단체·기관의 기획 완성도 향상과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신설되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매해 5월 공모·선정하여 역량강화 교육,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자문단의 밀착 자문을 제공해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구체화를 돕는다.

2020년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에 참여한 5개 단체에 어떠한 발전과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사업 담당자들의 후기를 들어보았다.

2020년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진행일정

1

공모 접수

-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공모 접수

2

서류심사

-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심사
- 지원 사업 최종 선정(최대 5개)

4

교육 및 자문

- 역량강화 교육
- 사업기획안 보완 집중 자문

3

오리엔테이션

- 선정 사업 대상 오리엔테이션

5

중간평가

- 중간평가 및 결과 공유

6

최종평가

- 사업기획안 최종평가
및 우수기획안 선정

7

성과공유회

- 우수기획안 발표 및 성과 공유

※세부일정은 공모요강 확인

2020년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사업성과

2020년에는 화성, 수원, 파주, 포항, 제천, 총 5개 지역이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에 참여했다.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021년 추진 예정인 사업 기획안의 완성을 도왔다. 참여 단체는 콘텐츠의 차별화, 네트워크 구축, 공감대 형성 방안 등 저마다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다. 담당자들은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교류지역을 새로 선정하거나, 양 지역 역사와 문화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사업기획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갔다.

지역(사업수행기관)	분야	교류지역	사업명
경기 수원시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공연·워크숍 (판소리)	독일 프라이부르크	수원의 <정조가>, 900년 역사의 음악도시 프라이부르크에 올려 퍼지다
경기 파주시 (파주시시립예술단)	공연(합창음악극)	미국 글렌데일	LA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10주년 기념 문화축제
경기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워크숍 (거리 퍼레이드)	스페인 타레가	죽음의 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경북 포항시 (포항문화재단)	공연·워크숍 (전통무용)	일본 마이즈루	포항시·마이즈루시 문화교류 사업
충북 제천시 (제천문화재단)	전시·워크숍· 영상 공유회(한방)	중국 장수	한방(약초) 자연치유의 예술적 만남

국제문화교류 이해도 향상 및 기획역량 강화

- 사업 준비 과정에서 이뤄지는 긴밀한 교류 강조
- 교류에 중점을 둔 사업방향 설정 및 프로그램 구체화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은 긴밀한 교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로 통한다'는 교류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문화교류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한 콘텐츠 발굴을 돕는 등 참여 단체의 전반적인 기획역량을 강화하였다. 일본 마이즈루와 교류하는 경남 포항(포항문화재단)은 양국 예술가가 음악과 안무를 교환하는 예술교류를 중심으로 사업방향을 조정했다. 경기 화성(화성시문화재단)은 '커뮤니티 아트'라는 접점을 가진 스페인 타레가로 교류지역을 변경하고, 현지 축제인 '피라 타레가(Fira Tarrega)' 사무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다.

교류지역과 협업을 통한 국제교류형 프로그램 개발

-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으로 개선
-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콘텐츠 중심의 기획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은 전문가 밀착 자문으로 국제문화교류 우수사례와 전문적인 교류 노하우를 공유하고, 쌍방향 문화교류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다. 또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제나 연결점을 녹여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였다. 대표적으로 충북 제천(제천문화재단)은 중국 장수와 '한방과 자연치유'라는 공통 주제를 선정하고 양국 예술가가 함께 천연염색 작품을 창작하는 교류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였다. 한편 경기 화성(화성시문화재단)은 보편적 관심사인 죽음을 주제로 스페인 타레가의 예술가들과 한국의 장례문화를 재구성한 거리 퍼레이드를 기획하였다.

지속가능한 교류 방안 모색

-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문화교류 정례화 방안 모색
- 교류사업 성과 후속 활용 방안 마련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을 통해서 교류 기획안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류사업 성과를 활용한 중장기 교류계획도 수립할 수 있었다. 발굴 중인 콘텐츠가 장기적인 교류에도 적합한지 논의하고 문화교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교류사업 성과 활용 방안도 준비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교류를 진행하는 경기 수원(수원시국제교류센터)은 '수원화성문화제', '광교재즈페스티벌' 등에 프라이부르크 재즈콰이어를 초청하여 합동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파주(파주시시립예술단)는 2021년 교류에 이어지는 후속 교류에 대비한 단계별 전략을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교류 방안을 모색하였다.

2020년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담당자 인터뷰

Q. 국제문화교류 콘텐츠를 선정할 때 어떤 점을 고민하셨나요?

“수원을 상징하는 문화 콘텐츠를 선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조선 제22대 왕 정조와 수원 화성이 있는데요. 정조의 ‘효’를 주제로 삼기에는 동양문화로 한정되어 지역 음악 콘텐츠인 판소리 뮤지컬 <정조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수원시국제교류센터 한지수)

“어떤 지역 콘텐츠가 국제문화교류에 적합한지, 선정된 콘텐츠가 어떠한 호소력을 지녔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류 방안을 고민했습니다.”(화성시문화재단 이영현)

“콘텐츠의 초점을 전통문화에 돌지, 오늘날 지역 이슈에 돌지 등 전체적인 방향과 관점을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성 교류가 아닌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해 교류지역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했고요. 특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나 관심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포항문화재단 이성훈)

Q.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국제문화교류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겼나요?

“극장, 전시장처럼 정해진 공간에서 이뤄지는 교류를 넘어서, 화성만의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위해 교류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공통점을 찾고 사람과 사람, 예술가와 예술가를 연결하는 기획을 시도했습니다.”(화성시문화재단 이영현)

“각자 준비한 콘텐츠를 단순히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콘텐츠를 만들어야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긴밀한 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교류 과정과 소통에 더욱 신경쓰게 되었습니다.”(제천문화재단 류소애)

“국제문화교류는 일회성 교류에 머무를 수 있지만, 문화교류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분야로 확장될 수도 있더라고요. 이전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문화교류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파주시청 이은순)

Q. 이 사업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된 점 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홍보 방법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차별성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고민해주셨습니다.”(수원시국제교류센터 한지수)

“전문가 자문위원의 기획방향 설정과 역량강화 교육이 가장 좋았습니다. 덕분에 창작 뮤지컬이나 합창극을 지역문화와 연계해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충남 서천(서천군립예술단) 사례를 역량강화 교육에서 들으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파주시청 이은순)

Q.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참가자로서 어떤 분들에게 이 사업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아직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객관적인 평가나 조언이 필요한 단체에 추천합니다.”(포항문화재단 이성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기획이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원시국제교류센터 한지수)

Q.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을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기존 역량강화 교육에서 소개하는 우수사업 사례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례들을 소개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업무 진행에 필요한 매뉴얼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포항문화재단 이성훈)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에 참여하는 담당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참여 단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제천문화재단 류소애)

PART 3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사업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연, 전시, 기획, 마케팅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문화교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운영 첫해에 선정된 12명의 자문위원은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8개 사업과 기획지원 5개 사업을 나눠 맡아 역량강화 교육, 단계별 자문, 평가를 실시했다. 국제문화교류 사업수행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문을 제공한 자문단의 한 해 활동 및 성과를 살피고, 그중 4명의 자문위원이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미래를 논한 자리를 확인해 본다.

2020년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주요 활동 및 성과

2020년 처음 운영된 ‘국제문화교류 자문단’은 2020년에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추진지원)과 2021년에 추진 예정인 사업(기획지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풍부한 국제문화교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사업수행기관의 멘토 역할을 맡았다. 자문위원은 전담한 사업에 대해 사업 단계별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사업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교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기획을 도왔다.

자문위원

분야	자문위원	소속
공연 및 축제	김성주	공연예술컨설팅그룹 비은뒤 대표
	주재근	정호국악문화재단 대표
	주재연	(주)난장인터랙티브 대표이사
	천재현	정가악회 대표
전시	서진석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겸임교수
	유진상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
마케팅 브랜딩	류효봉	(주)노리단 대표
	이승윤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부교수
	홍유정	(주)하스카 <기획자의 집> 대표
	홍종현	커먼그라운드 마케팅 차장
학계	김세준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원장·박물관장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수행기관별 자문위원

구분	사업수행기관	자문위원
2020년 추진 사업 (추진지원)	(사)고성농요보존회	류효봉, 천재현
	광명문화재단	서진석
	(재)김포문화재단	유진상
	(재)목포문화재단	류효봉, 김성주
	밀양아리랑콘텐츠사업단	이승윤, 주재연
	서천군립예술단	유진상, 홍종현
2021년 추진 예정 사업 (기획지원)	시화풍정 담소	주재근, 홍유정
	(사)한국연극협회군포지부	이승윤, 주재연
	(재)수원시국제교류센터	이승윤, 주재근
	(재)제천문화재단	서진석, 홍유정
	파주시시립예술단	주재연, 홍유정
	(재)포항문화재단	천재현, 홍종현
화성시문화재단	류효봉, 홍종현	

사업 전 과정의 전문 자문 제공

-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지역 간 문화교류 방향 설정
- 교류 프로그램 구체화 방안 제시

자문위원단은 교류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활동하며 2020년 추진 사업과 2021년 추진 예정인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 및 사업 방향을 살펴보았다. 처음 기획한 주제가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나 역사와 맞닿아 있는지, 나아가서 교류지역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등을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 콘텐츠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사업수행기관은 자문을 토대로 지역 간 공통점이 분명한 곳으로 교류지역을 새로 선정하거나 양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창작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획안을 발전시켰다.

현장밀착형 제언으로 사업 추진 협력

- 사업 분야별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 완성도 제고
-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교류사업 지원

2020년에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한 사업수행기관은 교류 기획부터 실행까지 이어지는 한 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실무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전시, 공연, 축제 등 전문 분야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문위원은 사업 추진 단계별 기술적인 준비사항을 꼼꼼히 짚어가며 사업수행기관과 현지 협력기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왔다. 또한, 코로나19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국제문화교류의 흐름에 발맞추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류 방안, 공연 영상 촬영기법 등 현장 경험을 반영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국제문화교류 역량강화 교육

-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이해도 제고
-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가능한 교류 방안 전수

사업별 맞춤 자문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이해도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병행하였다. 자문위원단은 양국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쌍방향 교류를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된 국제문화교류 사업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교류지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 교류 성과를 활용해 후속사업을 이어가는 전략 등도 전수해 일회성 교류로 끝나지 않는 지속가능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도모했다.

사업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

- 현장방문을 통한 추진 현황 점검
- 지표에 근거한 사업평가 후 피드백 제공

자문위원단은 2020년 추진 사업과 2021년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했다. 또한, 교류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나 콘텐츠 제작 현장에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수행기관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탰다. 2차례 평가가 끝난 후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자문위원단이 모인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한 해 교류사업의 여정을 정리하고 성과를 나누며 향후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방향을 논의했다.

2020년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인터뷰

2020년 다방면으로 활동한 국제문화교류 자문위원 4명이 모여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현황과 문제를 짚어보고,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현지 코디네이터 발굴, 지속가능한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한 정책 마련 등 교류 현장에 몸담으며 체득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오갔다.

자문위원 소속

김세준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원장·박물관장

류효봉 (주)노리단 대표

주재연 (주)난장인터랙티브 대표이사

홍유정 (주)하스카 <기획자의 집> 대표

인터뷰 일시

2020.12.2. 16:30~18:00

169
홍유정 안녕하세요. 2020년 국제문화교류 자문단으로 활동한 홍유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았는데요. 세 분의 자문위원과 함께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현황, 정책의 방향성 등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사업 평가 및 전망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Q.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및 자문위원 활동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류효봉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노리단'의 대표 류효봉입니다. 노리단은 2013년부터 프랑스 낭트와 교류하며 해마다 '한국의 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순천의 제안으로 한국의 봄 축제를 순천 문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기획했는데 이때 순천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 사업에 참여한 계기로 자문위원단에 위촉되었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경기 화성), 고성농요보존회(경남 고성), 목포문화재단(전남 목포)을 맡아 국제문화교류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 방향성 제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김세준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원장과 박물관장을 겸하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진흥원과 함께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을 설계했고, 현실과 맞닿은 사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사업 초기 인연으로 자문위원단에 합류해 2020년 사업 참가지역 선정부터, 중간평가, 최종평가까지 진행했습니다.

주재연 '난장인터랙티브' 대표이사를 맡은 주재연입니다. 1990년대부터 전통 콘텐츠를 기반으로 국제교류 활동을 시작했구요. 김세준 교수님과 함께 국제문화교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문화교류를 진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적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2020년에는 자문위원으로서 한국연극협회군포지부(경기 군포), 밀양아리랑콘텐츠사업단(경남 밀양), 파주시시립예술단(경기 파주)을 담당해 자문에 응하였습니다.

홍유정 저는 지역문화 마케팅 기획사 '하스카'에서 문화기획 사업을 하고 있고,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한 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다가 3년 전부터 제주도에 지역문화 기획사를 설립해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발굴하고 지역사업 마케팅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축제 브랜딩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번에 진흥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시화풍정 '담소'(전남 해남), 파주시시립예술단(경기 파주), 제천문화재단(충북 제천) 자문을 맡았습니다. 컨설팅, 심사·평가를 진행하면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Q.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켜본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현장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재연 지자체가 교류사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보통 지자체에 국제교류 담당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역할은 문화예술보다는 주로 관광 분야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국제문화교류 사업에서 지자체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서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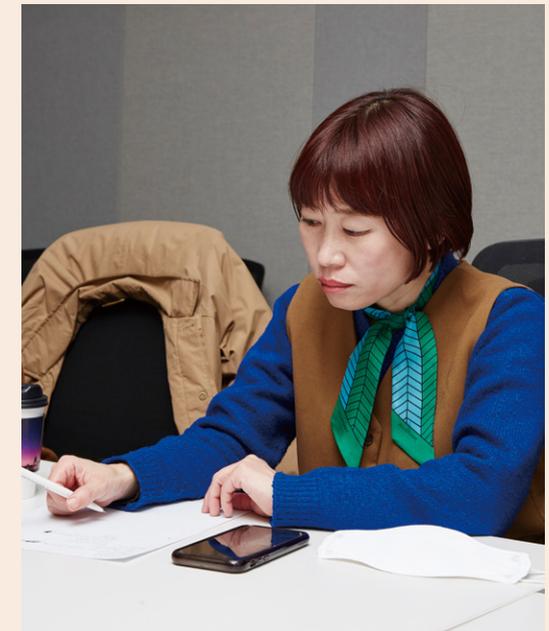
류효봉 2020년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지만, 2019년에는 순천-낭트 교류사업을 수행하며 직접 현장에 있었는데요. 우선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 명확해져야 할 것 같아요. 실적을 위한 일회성 교류도 많은데,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주최 측에서 개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유정 저도 이번에 해남, 파주, 제천 지역 자문을 진행하면서 공통으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 이 사업의 목적, 대상, 교류 방법, 단계별 전략 등을 더욱 구체화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류 사업은 문화력, 예술력, 상상력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가 중요한데요, 이런 요소를 갖춘 흥미로운 콘텐츠가 아직 부족해요.

김세준 제 생각에도 더 구체적인 사업 방향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처럼 우수한 지역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든지, 지역성을 살려 국민 참여를 도모한다든지요. 저는 이 사업을 일종의 육성사업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해요. 투자나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발굴, 자문, 기획지원 등을 단계별로 밟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Q. 전문인력의 부족, 일회성 교류 등을 아쉬운 점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기관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류효봉 김세준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업의 초점이 지원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후에는 지역의 의지에 의존하는 셈이죠. 지자체에서 국제문화교류로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의지가 있으면 좋은 성과로 이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회성 교류에 그치게 됩니다. 사업에 따라 지자체는 의지가 있는데 민간단체가 적극적이지 않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사업 과정을 큰 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습니다.

김세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육성사업으로 본다면, 먼저 국제문화교류 역량이 부족한 단체에 사업 접근 방법부터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려주는지가 관건인데요. 지역 고유 콘텐츠로 국제문화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절차 등을 알려줄 수도 있고, 사례분석을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도 있죠. 교류사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유정 맞아요. 접근 방법을 모르는 지자체나 참여 단체는 교류지역 및 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국내 지역과 해외 지역을 연결할 코디네이터를 진흥원이 나서서 발굴하면 어떨까요? 민간 코디네이터와 협업하거나 직접 신청을 받아도 되고요. 코디네이터가 지역마다 교류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진흥원은 자연스럽게 국제문화교류 플랫폼을 갖출 수 있고, 앞으로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진흥원의 영향력도 강화될 겁니다.

류효봉 저도 진흥원이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교류지역을 직접 연결해주면 좋겠어요. 이미 해외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교류를 진행하는 민간단체들이 있으니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서 지역끼리 연결해줄 수도 있겠죠.

Q. 아직 국제문화교류가 낯선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 플랫폼 등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사업 개선점과 제안사항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홍유정 저는 심사나 평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지점들이 더욱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 단체의 비전, 두 번째는 운영 능력, 세 번째는 국내외 네트워킹 능력을 평가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획력, 마지막으로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면 좋겠어요. 문화예술 사업을 단순히 산업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간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할 것 같아요.

김세준 지금은 사업 모니터링 위주로 자문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업이 끝날 때쯤 밀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이나 바람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거죠. 또한, 교류지역 담당자를 인터뷰하는 것도 중요해요. 국내 참여 단체와 해외 교류기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주재연 모니터링을 더욱더 전문적으로 진행해도 되고요. 전문가들이 방문해서 교류지역이 어떻게 협력했는지, 코디네이팅은 원활히 진행되었는지, 내년에도 교류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묻는 거죠. 정량적인 평가는 서류나 영수증만 확인하면 되지만 정성적인 평가에는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류효봉 물론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막상 평가 때문에 중간평가 때 실제보다 과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도 봤어요. 부담을 주는 방식보다는 중간평가도 심층 컨설팅처럼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Q. 평가 기준, 심층 컨설팅 등의 진행 방식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재연 팬데믹 시대에 성공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려면 사업의 틀이 크게 변화해야 해요. 공연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주도민, 관광객들이 다 같이 제주도 해변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모아서 '만다라'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 플라스틱을 다른 지역에서 보내 그곳에서 '만다라'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한 지역에서 모은 재료를 다른 지역에서 넘겨받아 작품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비대면 교류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실물을 가지고 비대면 교류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세준 국제문화교류의 형태가 온라인, 비대면 교류로 급히 전환되면서 전문 기술 활용과 저작권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비대면 교류를 추진하기 전에 이들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예산은 얼마나 책정할지 고민이 필요하겠죠. 또한, 결과물의 저작권을 누가 소유하냐고 물으면 영상 제작자가 우선이에요. 교류성가를 남겨야 하는 지자체나 수행단체 입장에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국제문화교류의 양상에서 비롯된 이슈를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류효봉 사실 온라인, 비대면 교류도 갑자기 닥친 재난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에 가깝죠. 비대면 교류에 적합한 콘텐츠는 오프라인 교류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 지자체나 참여 단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진흥원이 도와야겠죠. 먼저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부분 문화예술인은 첨단기술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경험이 없어요. 두 번째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야 해요. 지금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온라인 플랫폼을 진흥원 차원에서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매해 교류사업을 아카이빙하고 각각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만든다면 진흥원이 하나의 국제문화교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겠죠.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인터뷰

Q. 팬데믹 시대에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느낀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재연 이번 기회로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국제문화교류에 갖는 관심과 열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국제교류의 '교(交)'자가 의미하는 소통을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국제문화교류란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고 지한파, 친한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들이 한국 물건을 사고 한국에 놀러도 오게 이끄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런 교류를 주도할 만한 한국만의 콘텐츠를 고민하고 발굴해야겠죠.

김세준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일방적으로 우리 것을 내세우는 교류가 아닌,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콘텐츠를 접하게 될 현지 사람들과 그곳의 문화를 고려한다면 국내에서 보여주는 방식과는 달라야 해요. 예를 들어 몽골에서 비보이 공연을 하면, 춤으로 몽골의 역사나 문화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교류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콘텐츠에 녹여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교류가 이뤄집니다.

홍유정 최근 '넷플릭스'의 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케팅 캠페인과 멤버십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인 멤버십 전략을 국제문화교류에 적용해서 자문위원단과 지자체, 참여 단체, 시민사회, 코디네이터 등을 연결하는 멤버십을 형성하면 좋겠어요. 이번 사업으로 진흥원의 첫 멤버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멤버십을 확장해가면 좋겠습니다.

류효봉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은 크게 당해연도 추진지원 사업과 차년도 기획지원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지금은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되지만 2년 과정으로 묶어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당해연도에 기획부터 실행까지 마무리하려면 촉박한 일정에 쫓겨 결과가 아쉬울 수 있어요. 한 지역이 기획, 제작, 실행 단계를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여기에 자문과 꾸준한 관리가 더해진다면 지속가능한 쌍방향 문화교류가 자연스레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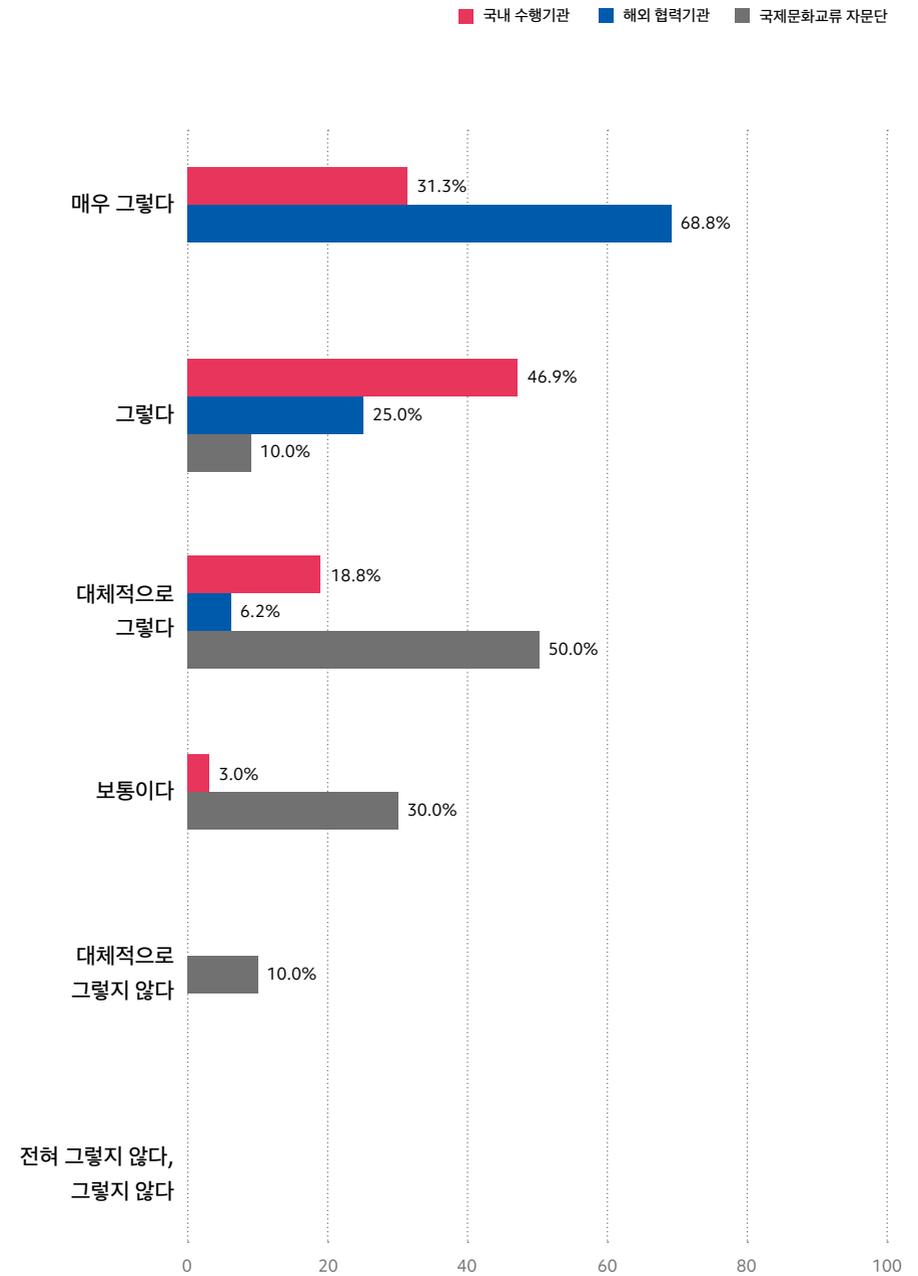
사업 만족도 조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의 개선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국내 수행기관, 해외 협력기관, 국제문화교류 자문단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다. 전반적으로 높은 사업 만족도를 확인하는 동시에 참여 주체들이 사업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도 살필 수 있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면밀한 내부 분석을 거쳐 향후 사업 발전에 활용될 예정이다.

<u>조사 기간</u>	2020. 12. 23. – 2020. 12. 30.
<u>조사 대상</u>	2018~2020년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에 참여한 국내 수행기관, 해외 협력기관, 전문가 자문단 등 총 67명 중 58명 응답 · 국내 수행기관 담당자: 32명 응답 · 해외 협력기관 담당자: 16명 응답 · 전문가 자문단: 10명 응답
<u>조사 수행</u>	씨앤씨플러스
<u>조사 방법</u>	구글 폼(Google Forms)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1) 사업 종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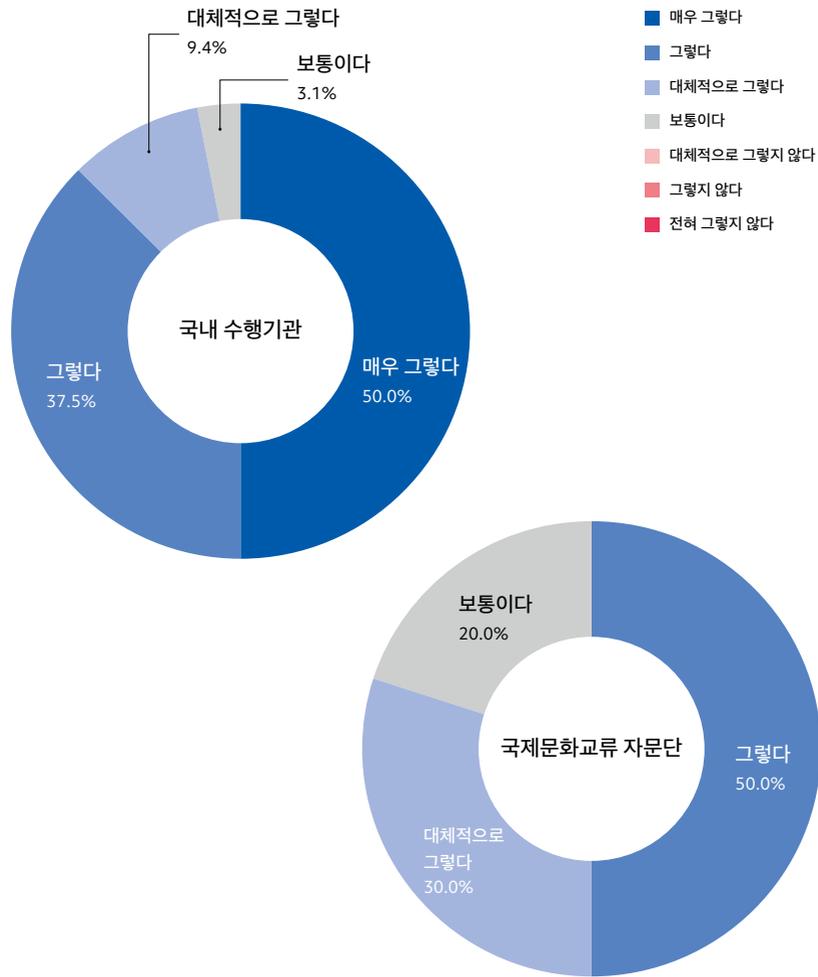
국내 수행기관과 해외 협력기관에 본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국내 97%, 해외 100%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또한 60%의 만족도를 보여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이처럼 긍정적인 피드백을 토대로 지역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확대 및 발전된 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문화교류 자문단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변한 원인을 분석하여 차년도 사업에서 보완할 것이다.



2) 성과 및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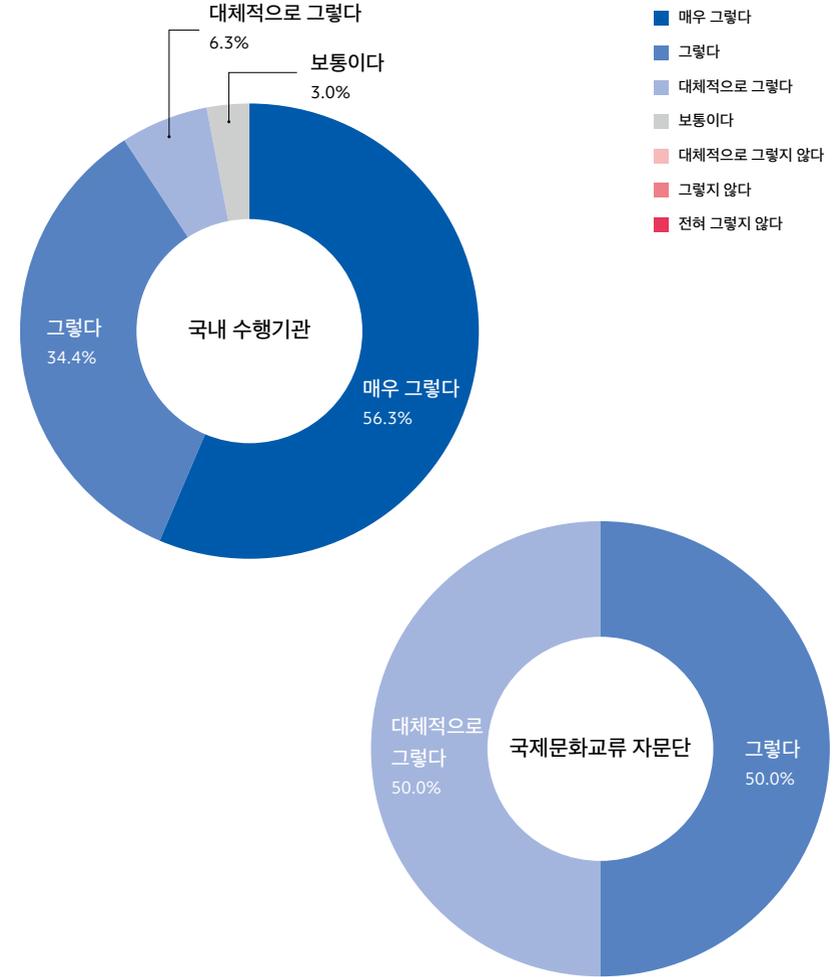
국내 수행기관과 자문단은 대체로 본 사업이 지자체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국제문화교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국내 수행기관은 다른 설문에서 사업을 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도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향후 교류지역과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응답하여, 앞으로의 사업 확산과 후속교류가 기대된다.

교류사업이 지자체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부록

교류사업이 지자체 국제문화교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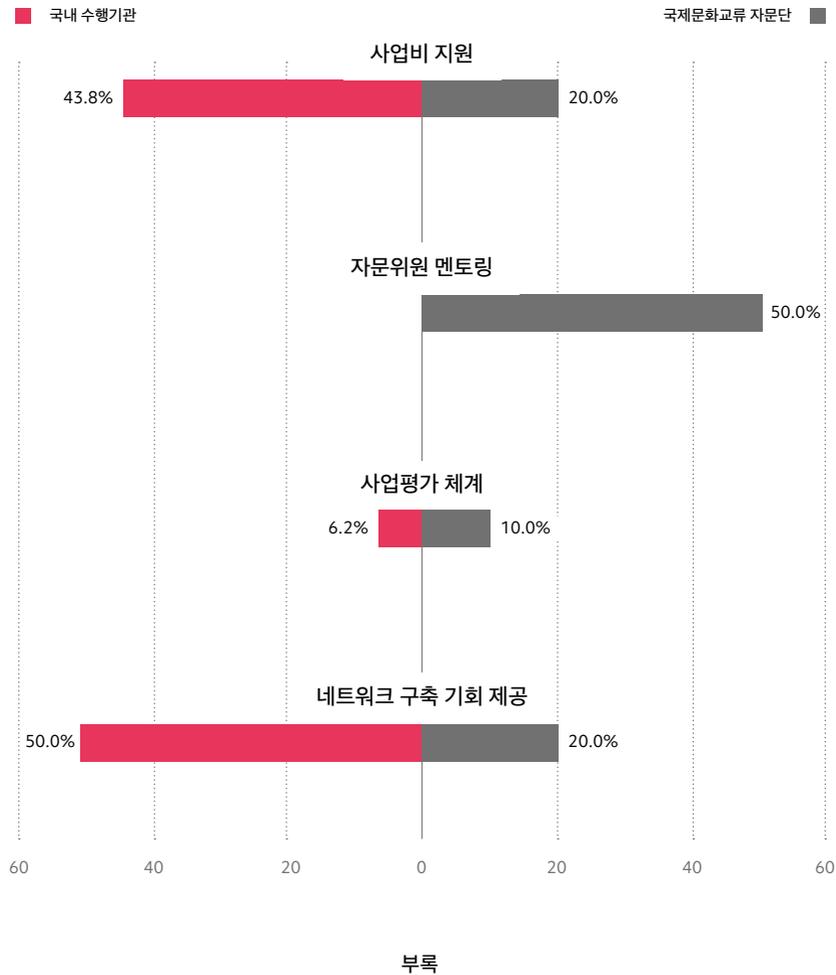


사업 만족도 조사

3)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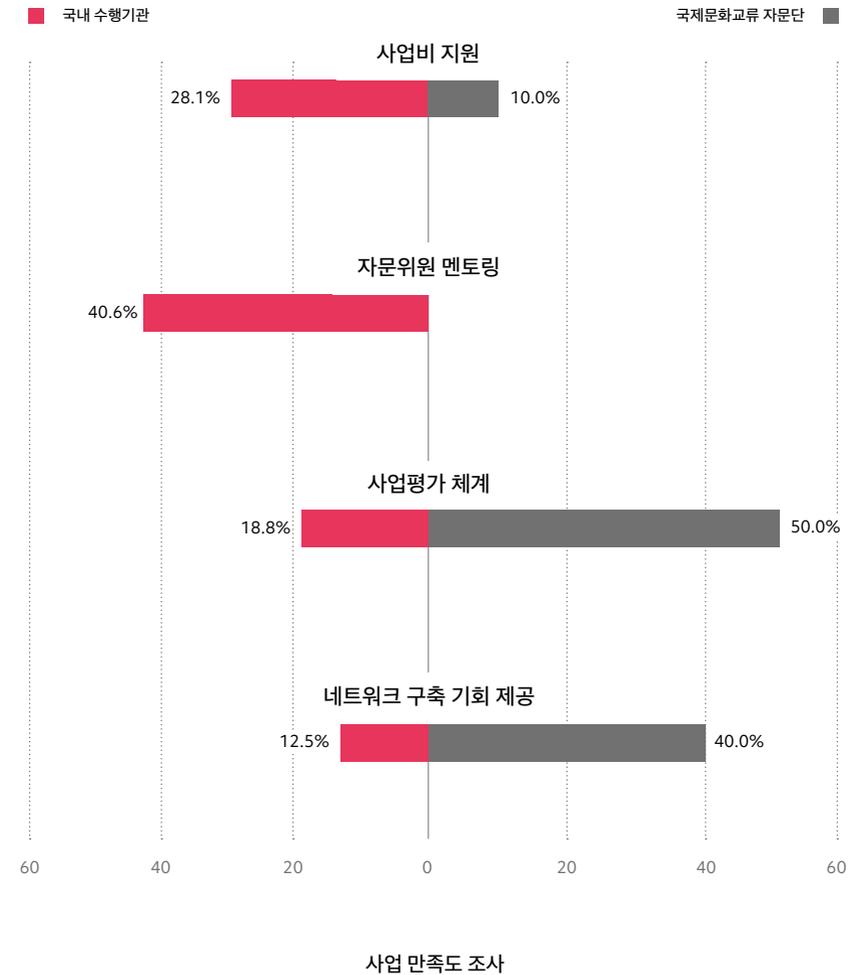
국내 수행기관의 절반이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이 본 사업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응답한 반면, 자문단은 '자문위원 멘토링' 지원이 가장 우수한 점으로 꼽아 사업 내 역할에 따른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우선시하며, 자문단은 사업의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중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의 우수한 점은 무엇입니까?



본 사업의 개선사항으로 국내 수행기관은 자문단 멘토링을, 자문단은 사업평가 체계를 언급해 역할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내 수행기관 실무자는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맞닥뜨리는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를 자문단에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향후 자문단 운영에 반영하여 실무자와 자문위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섬세한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자문단은 실제 추진 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적절한 평가체계를 통한 모니터링과 발전적인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행정적 지원과 성과도출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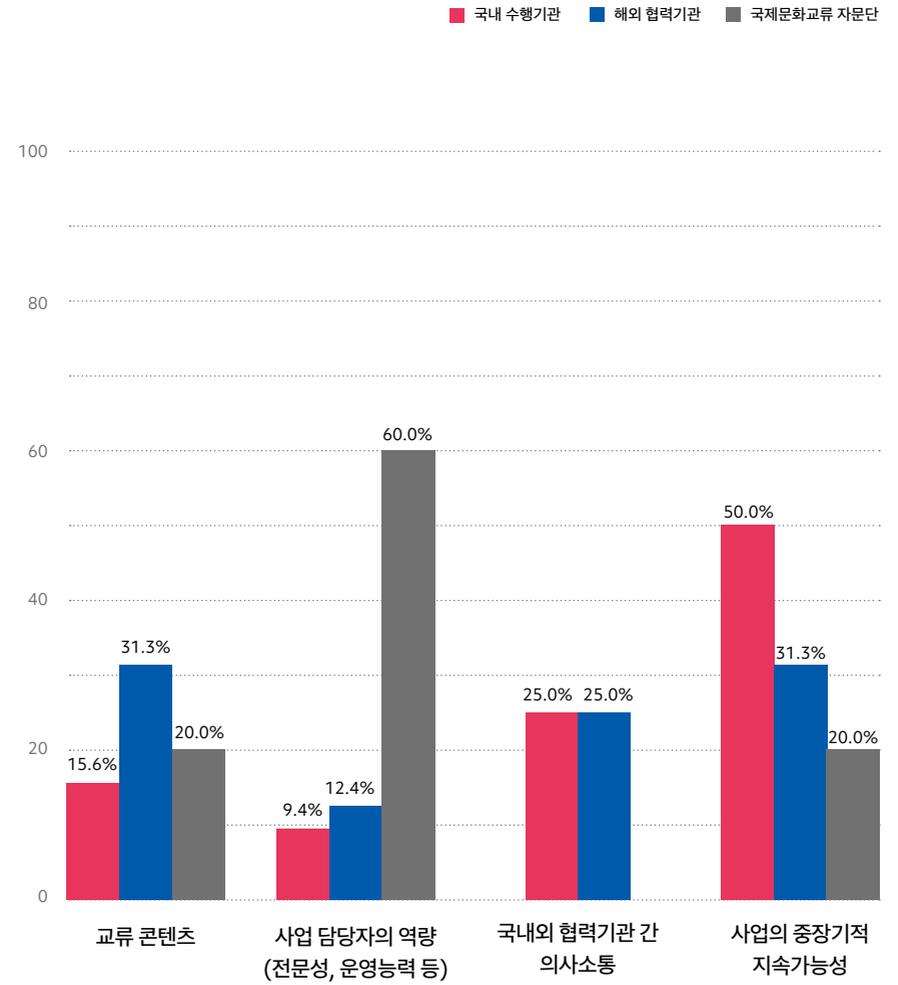
다음 중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에서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2. 국제문화교류 중요 영역

국내 수행기관과 해외 협력기관 대부분이 '사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국제교류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선택했다. 국내 수행기관 담당자는 '국내외 협력기관 간 의사소통'을, 해외 협력기관은 '교류 콘텐츠'를 그다음으로 꼽아 차이를 보였다. 현장 실무자 간 원활한 소통이나 교류 콘텐츠 역시 교류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했다. 한편, 자문단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꼽았고 '교류 콘텐츠'와 '사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개선사항과도 관련된 내용으로, 추후 지속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다음 중 국제교류 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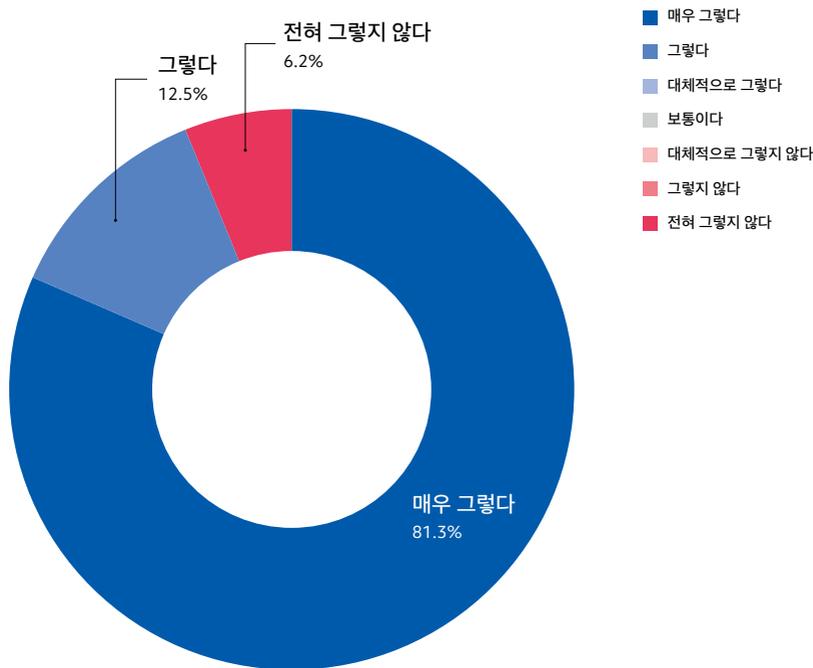


3. 해외 협력기관 및 자문단 종합 평가

1) 해외 협력기관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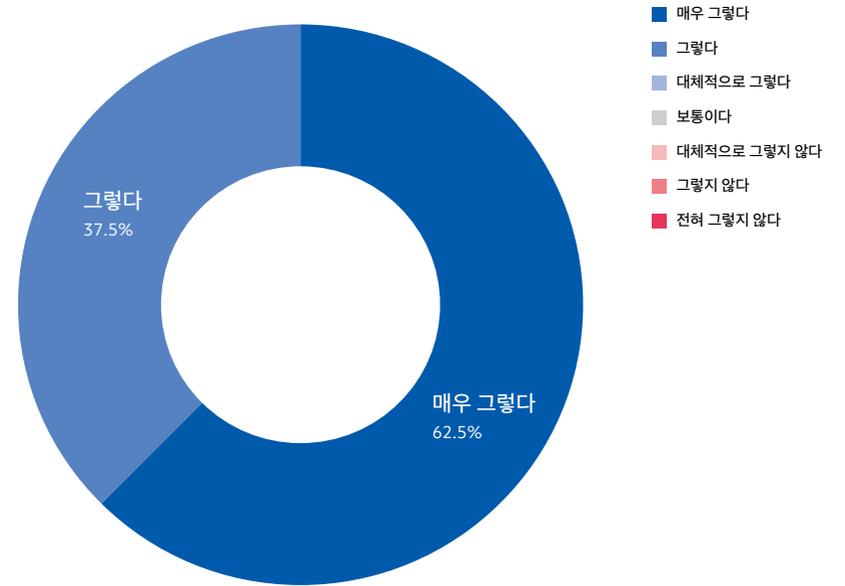
해외 협력기관 대부분이 처음 의도한 문화교류 목적에 맞게 교류사업이 진행되었고 나아가서 본 사업을 통해 국내 지역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답하였다. 해외 협력기관이 한국문화에 큰 관심을 갖고 향후 자발적으로 교류를 요청하리라 기대된다. 한편, 다수의 해외 협력기관이 교류사업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한국과 추진한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은 교류 목적에 부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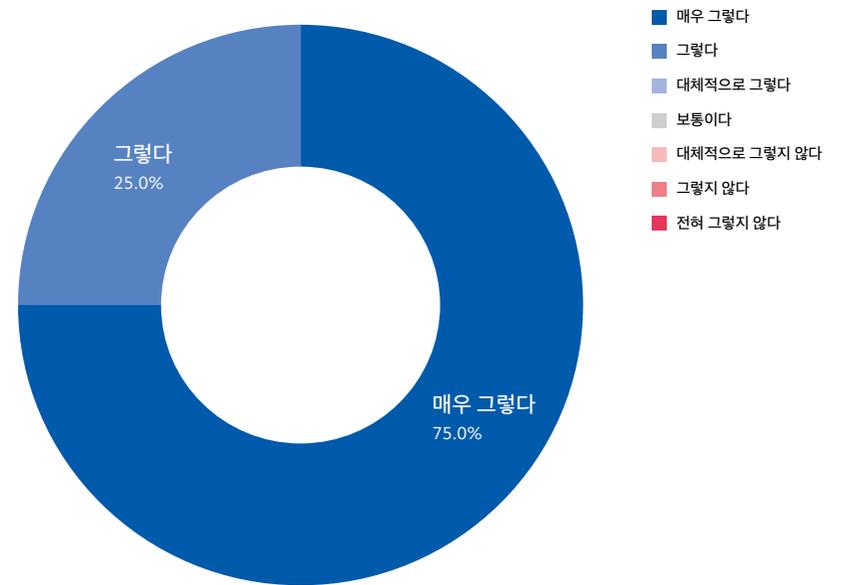


부록

본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사업 이전보다 높아졌다



본 교류사업이 양 도시 간 문화교류에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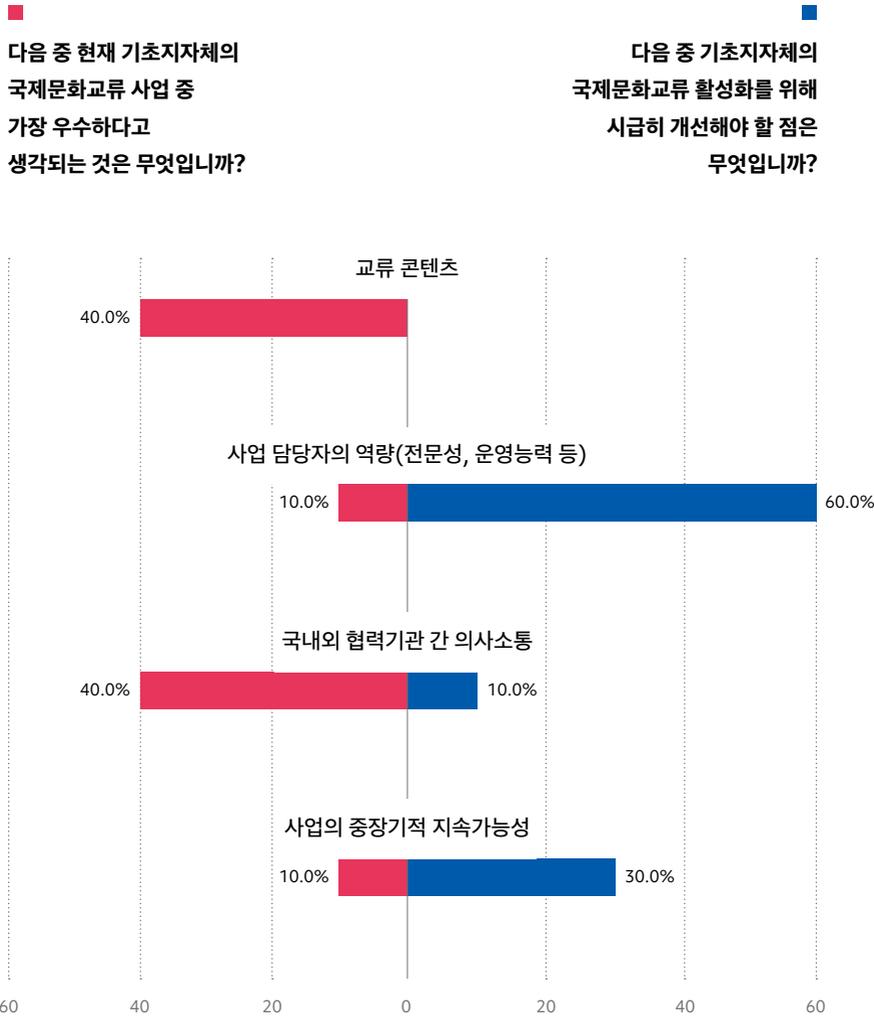


사업 만족도 조사

2) 국제문화교류 자문단의 기초지자체 사업평가

자문단은 지자체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담당자의 역량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고, 다음으로 '사업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지자체 국제문화교류 사업에서 가장 우수한 점으로 '교류 콘텐츠'와 '국내외 협력기관 간 의사소통'을 꼽아, 지역 우수 콘텐츠를 적절히 기획하고 교류사업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교류 콘텐츠 기획은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결된 부분으로, 향후 확대된 기획지원을 통해 보완할 것이다.



4. 결과 및 향후 계획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은 지난 3년간 국제문화교류에 적합한 지역 우수 문화를 발굴하고 국내 지역과 해외도시의 교류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예산 지원을 넘어서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교류사업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 등이 교류 성과로 이어져 담당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사업에 참가한 국내외 단체가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타 지자체에도 이 사업을 추천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아 앞으로 더욱더 밝은 전망이 예상된다.

1) 사업의 만족도

만족도 조사는 '사업 기획', '사업 실행', '세부 지원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사업 기획' 부문에서는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대한 기대와 목적 부합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해외 협력기관의 의견 반영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 실행' 부문은 교류사업 진행이 수월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사업을 논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세부 지원내용'에서 국내 수행기관은 사업비 지원,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에 대해 만족하였고, 해외 협력기관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양 도시 문화교류에 도움이 된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2) 사업의 효과

국내 수행기관과 해외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지속적인 교류 의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문화교류를 이어갈 것이다', '타 도시와도 국제교류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이처럼 높게 나타나 본 사업이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알 수 있다.

3)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국내 수행기관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자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내 수행기관은 자문단의 구체적인 피드백으로 실제 교류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여, 앞으로 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수행기관별 상황에 맞춘 자문을 제공하며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자문단과 국내외 교류사업 실무자가 국제문화교류를 바라보는 관점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자문단은 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중시한 반면, 국내 수행기관과 해외 협력기관은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사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교류 기반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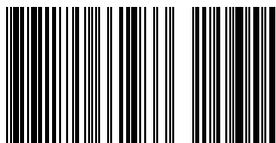
2018-2020 성과자료집

발행일 2021년 2월
발행인 김용락
발행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소 03920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203호
02-3153-1784
kofice.or.kr

기획 교류기반팀 유은정, 이수진, 조혜진
진행·편집 케이스터디
디자인 이응셋

© 202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본 도서에 수록된 모든 글과 사진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지합니다.



비매품/무료

ISBN 979-11-85661-93-3(15600)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전화 02-3153-1784

팩스 02-3153-1787

www.kofice.or.kr